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3747

2013년 2월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논문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만 3세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허 혜 윤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만 3세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actions of Three Year Old Young Children During Snack Time of Childhood Education Centers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허 혜 윤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만 3세 유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서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허 혜 윤

허혜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주 성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나 장 함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현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3

Ⅱ. 이론적 배경 ····· 4

A.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 ····· 4

B. 또래와의 상호작용 ····· 7

C. 교사와의 상호작용 ····· 11

Ⅲ. 연구 방법 ····· 13

A.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 ····· 13

B. 연구 대상 ····· 15

C. 자료 수집 및 분석 ····· 20

Ⅳ. 연구 결과 ····· 21

A. 만 3세반 간식시간의 또래 상호작용 ····· 21

1. 놀이시간으로 활용하기 ····· 21

2. 경쟁하며 대장되기 ····· 26

3. 이야기하며 우정 만들어가기 ····· 32

B. 만 3세반 간식시간의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 41

1. 친구 되어가기 ····· 41

2.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 54
3. 맛있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기 ····· 64

Ⅴ. 논의 및 제언 ····· 72
A. 논의 및 결론 ····· 72
B. 제언 ····· 80

참고문헌 ····· 81
부록 ····· 86

표 목차

<표 Ⅱ-1> 연령별 보육아동 현원현황 ····· 5
<표 Ⅲ-1> 사랑반 유아 현황 ····· 16
<표 Ⅲ-2> 사랑반의 하루 일과표 ····· 18

그림 목차

<그림 Ⅲ-1> 유치원 배치도 ····· 15
<그림 Ⅲ-2> 사랑반 교실 실내 배치도 ····· 17

ABSTRACT

A Study on Interactions of Three Year Old Young Children During Snack Time of Childhood Education Centers

Heo, Hye-yun
Advisor : Prof. Seo, Hyun, Ed. D
Major in Chil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of three-year-old young children with their peers and with the teacher during the snack time in childhood education centers.

The subjects were children and teachers in Kindergarten A in N city in Jeollanam-do, and the research period was March 5 to August 31 in 2012. During the period, 52 times of participation observation, video taking, recording and interviews were performed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snack times. The summary of major results according to research questions is shown below.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interactions of three-year-old young children with peers during the snack times?

First, although there were no play things they made joyful snack time with language and imagination. They induced humorous responses with

the use of repetitive vocabularies and imitation of famous in-words. They expressed new and original ideas stimulating their imagination through imagining or imitating activities considering food as play material. As such, children did not focus on eating itself but made multi-faceted search enjoying imagination play.

Second, young children showed quick eating, arranging and behaving themselves at eating, while competing one another to have snacks. They felt pride and learned right eating habits and how to arrange things while imitating others' behaviors. It showed that we need to educate them not to eat snacks quickly but to eat in time at optimal speed while making the right competitive behaviors among infants. It can be inferred that infants grow the sense of duty while making arrangement after eating snacks. It also suggests that teachers should guide them to have desirable eating habits because their eating habits are affected by the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Third, they felt intimacy through snack time and built friendship by sharing their experiences. They felt intimacy through conversations and body contacts, composed sympathy through similar experiences and made efforts to maintain relationship with friends through frank expressions of emotions. Therefore, teachers should understand diverse peer relationships that can be experienced in snack times and encourage them to build friendship during the snack time.

Res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interaction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eachers during the snack time of three-year-old kids' class?

First, in snack time, we could see the teacher encouraging children to participate in snack time, proposing suggestions to make it a better snack time, sharing experiences related to snacks and exchanging

supports and encouragements. The teacher selected snack time helpers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proposed behaviors to make snack time more enjoyable, shared experiences through favorite snack stories and helped them to finish snack in time. Through such interac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children, intimacy was created between them and they could be friends.

Second, the teacher taught etiquettes, order, cleanliness and modesty through the snack time and let them have the right habits. The teacher taught them etiquettes through eating in good posture and not talking while eating, and asked them to keep an order through queuing. Additionally, the teacher taught cleanliness through arrangement and modesty through not playing with teaching materials and not roaming around. It suggests that such life habits will help them to have the right sense of value during the course of socialization.

Third, they showed enjoying snacks when they had snacks that they liked. The teacher explained the efficacy of snacks and asked them not to be a selective eater. Additionally, emotional exchange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he teacher were shown sharing the joy. It was found that snack times could be a joyful time when young children could interact with the teacher.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e are what we eat”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까지도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속담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박진성, 2009). 인간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음식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자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매체이며 인간의 생활에서 사회성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윤서석, 2001).

또한, 유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은 일생동안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 발달 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사회성, 정서, 인지 등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즉, 이 시기는 총체적인 영역에서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수적인 기본적 생활습관들의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소원, 2004). 따라서 유아기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아기는 빠른 성장과 발달의 속도와 많은 운동량 때문에 체중의 단위 면적당 매우 큰 영양 소요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아는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의 소화기관의 용량이 작고 소화기능의 발달이 부족하여 한번에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하루 세끼의 정규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양의 보충을 위한 간식이 꼭 필요하다(이상금, 이은화, 이정환 1991).

이처럼 유아들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이 성인보다 훨씬 적어 하루 3회의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아에게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가벼운 식사, 즉 경식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대개 유아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식사를 하고 그 전 시간인 오전에, 종일

제 프로그램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먹는다. 간식은 식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양을 제공하여 다음 식사시간과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루 일과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박혜경 외, 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간식시간은 유아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는 시간이다. 유아에게 있어서 간식은 세 번의 식사로 모자라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간식은 유아에게 긴장을 이완시키며 피로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다. 또한 유아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며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유아는 정규 식사보다 간식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유아에게 간식은 하루의 부족한 영양소 필요량을 공급하는 것 외에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즉, 집단이 모여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은 간식의 영양적인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정미라·배소연·이영미, 2008).

식사시간은 반복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뚜렷하게 그려진다(Diana, 2002). 따라서 유아의 간식시간은 또래가 집단적으로 가지는 특성과 개인의 행동적 특성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간식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급·간식 운영 실태조사 연구(김동례·허경현·이현경, 2009), 유아들의 간식시간과 관련된 수학 교육 활동(이소원, 2004),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급식 관리 운영 분석(이성희·이명희·엄정애·김정현, 2001), 유아교육기관의 간식 공급 현황 및 영향평가(정미라·이영미·이기완, 2000), 서울시내 유아기 어린이의 간식실태 및 기호도에 대한 조사 연구(유영상·김희정, 1998), 유아 교사의 영양에 대한 이해와 간식운영(조은진, 1997)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간식시간의 운영이나 영양,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헌한 바는 있으나 유아가 주체가 되어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간식시간에는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므로 유아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김양지, 2010).

그러므로 간식시간의 즐거움과 유아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즉, 간식시간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므로 유아에게 발달적,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이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간식시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황 안에서 실제적 경험을 묘사하고 해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는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간식시간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발달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B.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A.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 발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얻으려면 식사와 간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어린이육영회, 1997).

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은 일생동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이 결핍된 유아는 성장이 지체되어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경 체계의 발달에 손상을 주어 지적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조경자·이현숙, 2005). 또한 균형 잡힌 영양섭취는 신체적 성장발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양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유지에 원동력이 된다(정연강·조정순, 2003). 많은 학자들이 성장기인 유아기 동안의 영양이 신체적 성장 발육과 건강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으며, 인지적 발달과 영양상태 간의 유의적은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의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상금·이은화·이정환, 1991).

이러한 유아의 영양섭취는 가정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유아교육기관은 38,021개소이며, 이를 이용하는 유아는 1,279,910명이다(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012).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104,861명 증가하였으며, 약 8.2% 증가하였다. <표Ⅱ-1>은 연령별 보육아동 현원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해마다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간식이나 식사를 통해 영양 섭취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1> 연령별 보육아동 현원현황

연령	2008	2009	2010
계	1,135,502	1,175,049	1,279,910
만0세	99,245	107,525	125,133
만1세	160,320	198,831	229,486
만2세	242,324	268,038	331,637
만3세	229,424	227,966	243,264
만4세	192,668	193,934	180,542
만5세	175,323	152,380	149,278
만6세 이상	36,198	26,375	20,570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영양소와 열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기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필요로 하는 열량이 2배 이상 높다. 성인에 비해 음식물을 씹는 능력이나 소화기능이 완전하지 않고 위가 작아서 세 번의 식사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유아들은 배고픔을 느끼는데 간식은 유아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고 식사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간식은 유아의 전체 영양소 섭취에 일부분이 된다(조경자, 이현숙, 2005). 간식은 영양보충이 주된 목적이지만 유아의 기분전환과 피로회복, 즐거움과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식약청 연구 개발, 2008).

유아에게 제공하는 간식의 양은 하루 열량 필요량의 10~15%가 적합하다. 단 간식은 다음 식사의 식욕을 감퇴시키지 않으면서 알맞은 만족감을 주는데 그치도록 해야 한다. 1~2세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경 2회, 3~6세에는 오후 3시경 1회가 바람직하며 다음 식사까지 2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침 결식 유아를 고려하여 오전 간식을 9시~9시 30분 사이에 급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오전 간식 급식 방법은 간식을 차려 놓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자율 급식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정미라·배소연·이영미, 2008).

이밖에 유아는 간식시간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게 된다. 기본생활습관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생활 전반의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한 행동양식을 익혀 습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식시간에 유아는 음식을 먹기 전후 손 씻기, 먹기 전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기, 골고루 먹기,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 적당량의 음식을 먹기, 자리에 앉아서 먹기, 깨끗이 먹기,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 음식을 먹은 후에 자기 자리 및 그릇은 스스로 정리하기, 이 닦기 및 식사예절을 배우게 된다.

또한, 유아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지내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집단 규칙을 이해하며, 도와주고, 양보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조운주·최일선, 2010). 유아는 간식시간에 또래 친구들과 동일한 식사를 같이 한다는 친근감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히 하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자신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물들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인지적 경험도 넓혀간다(조은진, 1997). 이와 같이 간식시간은 여러 가지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유아교육기관은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간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B. 또래와의 상호작용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호작용은 자신의 행동기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는 가정에서 부모・형제자매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들을 배워간다. 특히 현대사회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과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아들은 어린 나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또래와 접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적절한 발달을 이루게 된다.

즉,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대상은 점차로 확대되어 거의 동일한 연령지위를 갖는 유아들로 구성된 또래 집단과 접촉하게 된다(이명진, 1998). 또래(peer)란 연령, 성별, 학년, 행동 및 발달수준 등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동질감과 이해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유효준·이영자, 1986). 또래는 단순히 동년배라기보다는 행동의 복잡성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이다. 유아들의 경우 소속감이나 동질감, 집단 규칙, 리더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집단을 구성하기 어려우나 같은 학급의 유아들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고, 함께 배우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집단을 형성한다(조운주·최일선, 2010). 또래집단은 두 명 이상의 유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규칙이나 목표를 함께 하고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위치와 역할을 나누는 비교적 안정된 결합체를 말한다(Hartup, 1992).

또래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Vandell 등(1980)은 6개월 된 영아들이 음성화, 접촉, 미소 등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고 보고한다. 같은 영아를 대상으로 6, 9, 12개월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6~12개월 동안의 또래 간 상호작용을 추적, 연구한 이들은 응시, 미소, 접촉, 음성화, 놀잇감 갖고 놀기 등 5가지 범주에서의 상호작용이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되었으며,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뿐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도 함께 증가한다고 한다.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또래에게

물건을 주거나 보여주는 행동, 또래에게 요구나 바람을 표현하는 행동, 모방행동, 또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행동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생후 1년 이후부터는 언어교환능력을 갖게 되면서 행동이나 언어를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놀잇감 중심으로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래관계는 타인과의 독특한 애착관계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주은연, 2010).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정서와 인지,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정금, 2009).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유아는 또래집단에서 수용적이며 또래관계에서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자기정서 인식력이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문제해결을 촉진시키다. 또한, 타인정서 인식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Salovey & Mayer, 1998). 유아들은 유능한 또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Vygotsky, 1978).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지식을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유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적절한 언어를 선택·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여 개념발달을 이루고, 때와 장소 혹은 상대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유아는 우정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으로 유대관계를 발달시키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성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래집단에서의 우정 관계의 경험은 유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이해뿐 아니라 결국 자기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Youniss, 1980). 오채선과 염지숙(2004)은 유아들이 소속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더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공통된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우정관계를 형성하며, 결국 우정관계를 통해 집단에서 소속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박혜란(2008)은 우정은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집단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들은 또래들과의 논쟁과 불일치를 통해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정계숙·황영미, 2000). Piaget(1965)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심미연·임재택, 2010).

유아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고 또래 집단의 관계형성을 위해 사회적 융통성, 순응성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Elknd & Weiner, 1978). 또래의 격려와 인정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해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를 세워준다(조운주·최일선, 2010).

한편, 유아는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고 또래 간의 우정을 쌓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낮은 지위는 유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적응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신은수 외 4명, 2011). 또한 유아기의 부정적 또래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감소시킨다.(안수연, 1999).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드문 유아는 우울하거나 외로워하며, 또래들로부터 거부된 유아는 외로움,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안을 겪는다. 유아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외부 상황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친구에게 욕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임혜민, 2002). 이와 같이 유아는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정서·인지·사회성 발달,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는 반면 소외감, 따돌림, 불신, 좌절,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유아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성숙과 또래와의 관계형성에서 유능성을 발달시킨다. 유아들은 또래와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접촉하면서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또한 또래

집단의 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융통성과 순응성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Elkind & Weiner, 1978).

따라서 유아기 사회화의 기초는 또래 관계의 형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집단생활 경험은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쌓게 되는 기회가 된다.

C. 교사와의 상호작용

Garvey(1986)는 유아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이 다른 유아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도 유아에게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안수연, 1999). 민혜영(1998)은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부모·교사·또래 중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 교사는 유아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Katz, 1984). 즉 유아교육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서유현, 2002). 그리고 다수의 교사보다는 소수의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아들에게 개별적인 돌봄과 안정된 형태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수의 성인과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킨 유아는 좀 더 차분하고, 행복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주현 외, 2011).

Schickedanz 등(1990)에 의하면 유아교육 교사는 지식전달자, 계획자·조직자·평가자, 훈육자,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Kahlich & Dorminey(1993)에 따르면 교사는 정서적, 인지적, 상황적, 훈육적, 신체적 역할 등을 한다고 본다(김미정, 2001). 즉, 교사는 개입과 중재를 통하여 유아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문제해결력, 사고력, 창의력을 비롯한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Howes와 Smith(1995)는 유아의 인지활동 변화의 15~30%가 교사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애착의 안정성, 창의적인 놀이 활동의 참여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교사와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유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을 따르고 양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배워나간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워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교사와 상호작용을 잘 할수록 혼자서 활동하는 행동으로부터 점차 또래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놀이에서 상호 협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이현호, 1997).

즉, 유아에 대한 교사 행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 중심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교수를 하지 않을 때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안수연, 2000). 또한, 교사는 유아들의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그들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교사의 상호작용과 참여의 적절성이 유아의 정서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서유현, 2002).

또한, 교사는 유아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이해력,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Kontos와 Wilcox - Herzog(1997)는 교사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들은 높은 수준의 언어발달을 보였다고 한다. 임혜민(2002)은 언어적 상호작용 시 교사의 언어 모델이 유아 언어에 영향을 주며, 교사가 비지시적이고 유아와 함께 정보를 탐색할 때, 유아가 좀 더 자유로운 언어적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Berk와 Winsler(1995)는 교사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면 유아의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고, Katz(1999)는 칭찬은 구체적일 때 효과적이며, 오히려 자주하면 배경소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적절히 개별화된 지도를 통하여 따뜻한 관심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가 교사의 제안을 신중하게 듣고 반응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는 다시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Ⅲ. 연구방법

A. 문화 기술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에 이루어지는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문화 기술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는 인류학에서 발달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체류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소규모의 사람들-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참여관찰,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을 하면서 얻은 질적인 자료를 의미 해석하는 것이다(윤택림, 2004).

Alder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고(유미, 2010), 상황마다의 맥락이 일상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인지적 성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runner, 1996). 유아들이 경험하는 점심시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그들의 관점과 삶의 방식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아들의 행동은 의미가 있으며, 유아들은 매일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구성(Walsh, 1998)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조사, 실험, 면접, 시험,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민속학적 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 중 참여관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린데만(Lindeman. E. C.)에 의하면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관찰자가 피관찰자가 속하는 사회나 집단에 들어가 같은 사회생활을 체험하면서 내면에서 관찰하는 사회조사법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관찰은 유아와 같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대상을 연구할 수 있고, 단순한 설문지나 보고서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와 병행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의 감정, 생각, 의도, 세상에 부여하는 의미 등의 추상적인 부분이나 관찰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연구자의 이해나 해석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간식시간 동안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유아와 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적 사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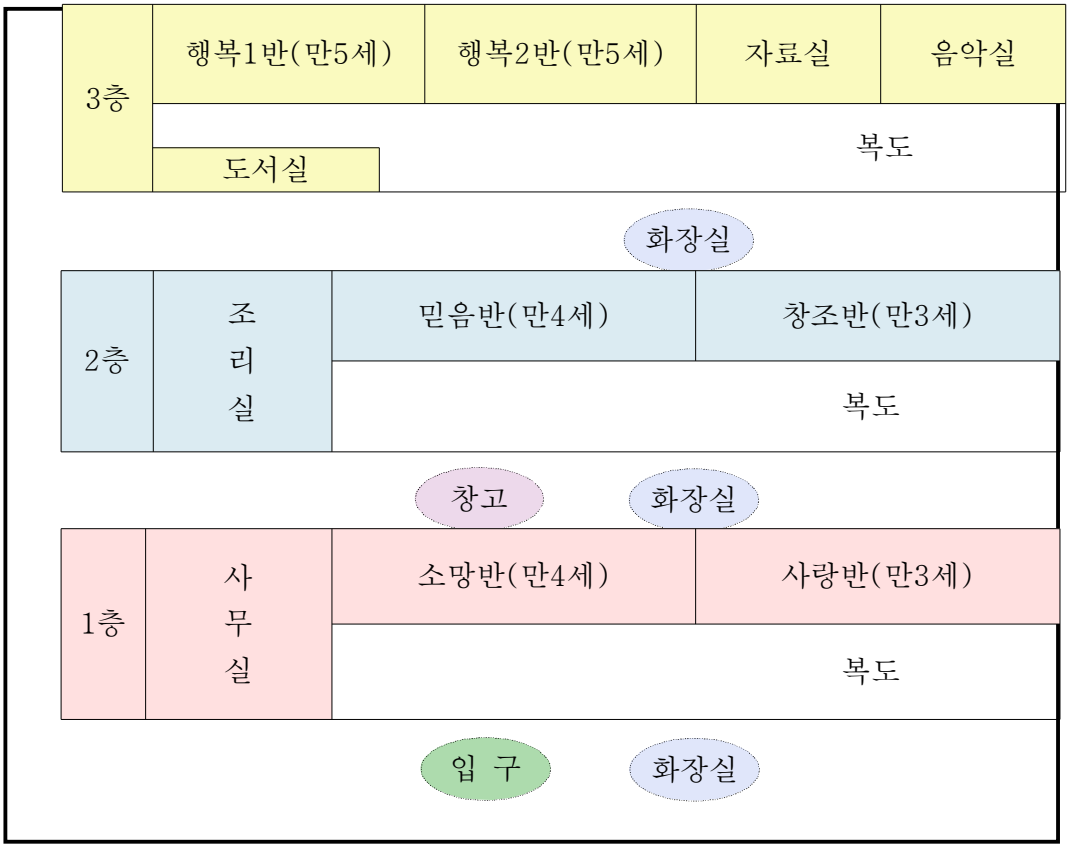
연구하고 각종 문헌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유아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B.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기관

본 연구에 참여한 A유치원은 전라남도 N시에 위치해 있으며, <그림Ⅲ-1>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A유치원은 3층 건물로 만 3세부터 만 5세의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다. A유치원은 총 6개 학급으로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각각 2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Ⅲ-1> 유치원 배치도



2. 연구 참여 학급

본 연구의 대상인 A유치원의 사랑반은 만 3세 반으로 유아 총 16명과 1명의 담임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남아는 10명, 여아는 6명이다. 사랑반 유아들의 이름(가명)과 성별, 연령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사랑반 유아 현황

이름	성별	연령	이름	성별	연령
강성현	남	만3년1개월	손영민	남	만3년1개월
김민경	여	만3년6개월	양재원	남	만3년1개월
김세정	여	만3년5개월	이민욱	남	만3년9개월
김수진	여	만3년3개월	이세은	여	만3년6개월
김진이	여	만3년9개월	이하빈	여	만3년0개월
박병관	남	만3년0개월	이현민	남	만3년9개월
박장호	남	만3년2개월	하태후	남	만3년0개월
설인	남	만3년9개월	한창민	남	만3년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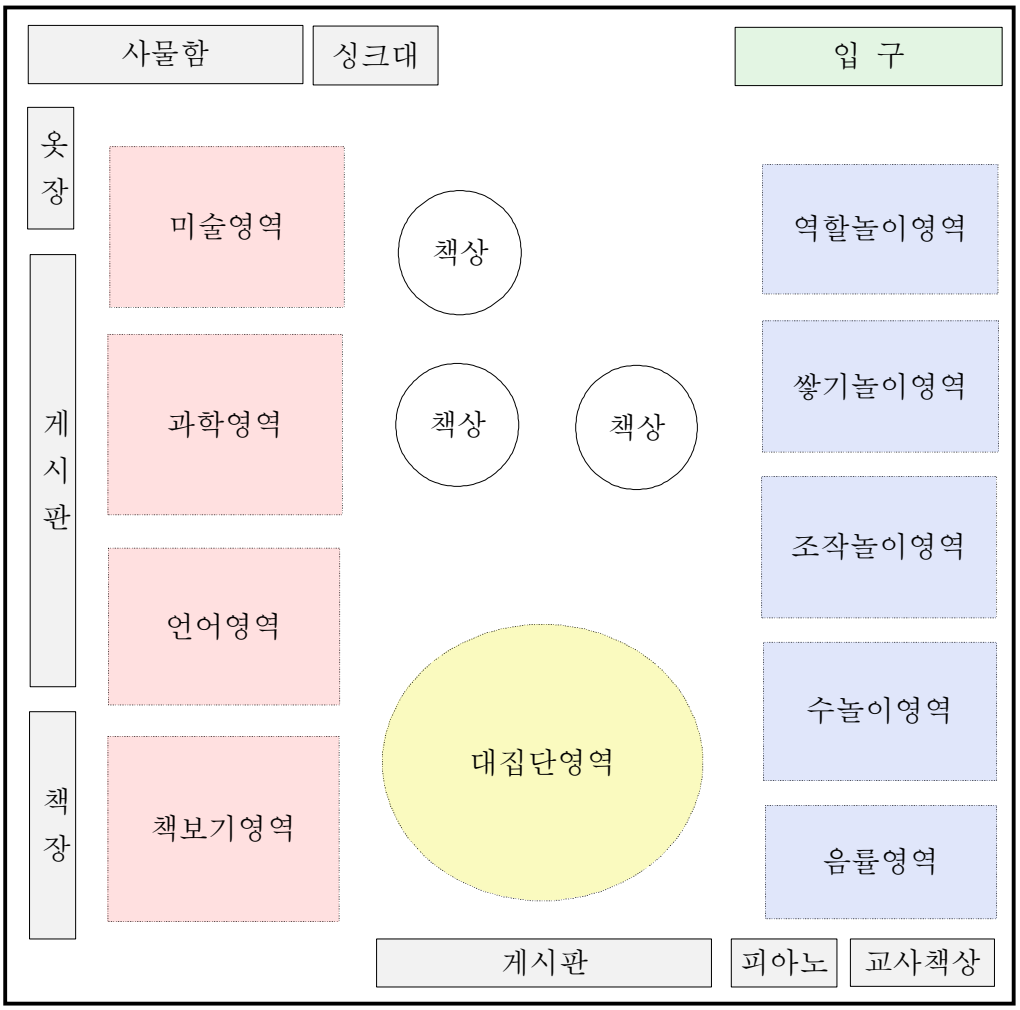
사랑반의 담임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력이 5년차인 교사이다. 유치원에서 2년 동안 만 5세반을 맡았으며, 3년 동안 만 3세반을 맡고 있다. 그래서 만 3세에 대한 발달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교수차원에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능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반 교사는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때 목소리, 언어, 표정 등으로 다양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사랑반 교사는 연구자의 간식시간 관찰에 대한 제안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연구대상인 사랑반 교실에서 교사와 유아들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 또는 녹음 할 수 있었다.

사랑반 교실은 A유치원의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교실 내 활동 영역은 <그림Ⅲ-2>와 같다. 교실활동영역은 쌓기놀이, 역할놀이, 조작놀이, 수놀이, 음률, 미

술, 과학, 언어, 책보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은 자신의 책상과 의자에 앉아 간식을 먹었다.

<그림Ⅲ-2> 사랑반 교실 실내 배치도



다음은 사랑반 학급의 하루일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Ⅲ-2> 사랑반의 하루 일과표

시 간	활 동
08:00～09:00	등원
09:00～09:50	자유 선택활동
09:50～10:00	정리정돈
10:00～10:30	오전 간식
10:30～11:00	대·소그룹 활동
11:00～11:1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1:10～11:30	대·소그룹 활동
11:30～11:50	대·소그룹 활동
11:50～12:00	손씻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12:00～13:00	점심 및 자유 선택활동
13:00～13:50	자유 선택활동 및 실외 놀이 활동
13:50～14:0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4:00～14:20	대·소그룹 활동
14:20～14:3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4:30～15:00	오후 간식
15:00～15:20	귀가지도

사랑반 유아들의 등원 시간은 각각 다르다. 걸어오는 유아, 1차 버스를 타고

오는 유아, 2차 버스를 타고 오는 유아들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유아가 교실로 들어오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경이다. 먼저 교실에 도착한 유아들은 자유 선택 활동을 한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오후 3시에 귀가한다.

사랑반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는 등원, 자유 선택활동, 정리정돈, 오전 간식, 대・소그룹 활동,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시간, 자유 선택활동 및 실외놀이 활동, 오후 간식, 귀가지도로 이루어진다. 사랑반은 시간대별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며 프로그램의 목적, 유아의 요구, 환경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되 매일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어 유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반의 오전 간식시간은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오후 간식시간은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각각 30분씩 이루어진다.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은 교실 앞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다. 유아들은 자신의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간식 그릇과 숟가락 포크를 사용한다. 교사는 간식시간에 도우미를 선정하여 간식 그릇 또는 숟가락 포크를 나누어 주도록 하고 뜨거운 죽이나 스프가 나오는 경우 교사가 간식을 직접 그릇에 담아 유아들에게 나누어 준다. 유아들은 간식을 먹은 뒤 교실의 싱크대에 그릇과 숟가락 포크를 정리하고 자신의 자리와 주변에 떨어진 음식을 정리한다.

사랑반의 교사는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간식시간 지도 시 음식물이 입에 있을 때 이야기 하지 않기,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간식을 먹기, 간식을 먹은 후 스스로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C.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A유치원에서 2012년 3월 5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총 52회 관찰하였다. 유아들의 오전 간식은 10시부터 10시 30분이었으며, 오후 간식은 2시 30분부터 3시까지였다. 연구자는 간식을 먹기 전과 후의 분위기를 관찰·기록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유아와 또래, 유아와 교사 간의 대화의 사례 중심이었으며, 유아의 행동, 표정, 반응과 담임교사의 행동과 대처반응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교사 및 유아들과의 비형식적인 면담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전사본으로 만들어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자는 여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사진촬영, 비디오 녹화, 녹음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려운 세부사항과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현장 노트, 간식시간 관찰 전사본, 교사와 유아의 비형식적인 면담 전사본, 동영상 자료, 사진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보조 자료로 유아들의 생년월일, 간식 식단 등을 참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와 또래,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A.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또래간의 상호작용

1. 놀이시간으로 활용하기

간식시간에는 유아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놀잇감이 제거된 상태로 간식을 먹기 때문에 유아들이 놀이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들은 간식시간 동안 말장난을 즐기며, 상상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간식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a. 말장난을 즐기기

간식시간에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어야 하며 교구를 가지고 놀이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 말장난은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유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중 하나이다. 간식시간에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나 행동 통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유아들이 서로 마주 앉은 공간에서 즐거운 말놀이를 즐긴다. 실제로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반복적으로 방귀라는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따라 하기도 했다.

다음은 재원이가 방귀를 끼자 세은이는 재원이의 낀 방귀 소리를 들었다고, 재원이와 세은이가 서로 반복적으로 “방구 뿡, 방구 뿡.” 말장난을 하면서 웃음을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 : 방귀소리 뿡~ 뿡~ >

세은 : (웃으면서) 재원이가 방구 꼈다. 방구. 양재원이.

재원 : 방구 뿡~ 뿡~ 낄 거야.

세은 : (계속 웃으면서) 재원이는 방구 꼈다. 방구.

재원 : 뽕~ 나오려고 그래. 뽕~

세은 : 방구 많아.

재원 : 방구 뽕~

재원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방귀를 끼는 것처럼 세은이에게 엉덩이를 보여준다.

재원이가 방귀 끼는 흉내를 내자 세은이는 계속 웃는다.

재원 : 방구 뽕~ 방구 뿡~

세은 : 방구 뿡~

세은이도 재원이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방귀 끼는 모습을 따라한다.

(2012. 5. 4. 오후간식)

"방구 뿡"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재원이와 세은이는 웃었다. "방구가 나오려고 해." "방구가 많아." 방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였다. "뽕~뿡~" 방귀를 끼는 흉내를 내면서 잠시 간식을 먹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장난을 즐기고 있었다. 간식시간 동안 또래와 함께 자유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다음은 장호와 세정이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따라하는 사례이다. 장호와 세정이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래"라는 말을 따라하면서 즐거움을 나눈다.

< 사례 2 :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 따라하기 >

세정 : 어제 개콘 봤냐?

장호 : 고래~

세정 : (웃으면서) 고래래. 고래. 고래 아니거든 그래거든.

장호 : 고래~ 고래~ (웃으면서)

세정 : 장호 좀 봐봐. 고래래. 고래. 흐흐흐~

병관 : 나도 그래~ 알어. 나도 봤어.

장호 : 그래~ 그래~

세정 : 흐흐흐~ 고래~

병관 : 고래~ 고래~

(2012. 5. 21. 오후간식)

세정이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았냐고 물어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호는 “그래~”하면서 유행어를 따라하였다. 장호가 “그래”라고 유행어를 하자 세정이도 웃으면 “그래”하면서 말장난을 하였다. 병관이도 장호와 세정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하면서 말장난에 동참하였다. 유행어를 따라하면서 유아들의 표정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되었다.

사례 1, 2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말장난을 하면서 하나의 놀이로 만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귀 뿡”, “그래”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웃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유민아(2007)의 연구에서 유아가 한 말을 계속 반복하여 되풀이하거나, 또래 유아의 질문에 시종일관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유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b. 상상놀이로 빠져들기

유아들은 간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놀이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괴물이라고 하고, 채소밥전을 먹으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먹기도 하였다. 또 부침개에 있는 채소들을 괴물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은 병관이와 창민이가 떡볶이를 괴물이라고 하면서 먹는 사례이다.

< 사례 3 : 괴물떡볶이 >

병관이가 포크로 떡볶이를 집어 창민이에게 보여준다.

병관 : (웃으면서) 우와~ 괴물이다.

창민이는 병관이의 떡볶이를 보고 자신의 떡볶이를 먹는다.

창민 : 내가 괴물을 먹어버렸다.

병관이는 창민이에게 떡볶이를 보여주면서 한쪽을 가르킨다.

병관 : (웃으면서) 이것이 얼굴이다.

병관이와 창민이는 떡볶이를 보면서 웃는다.

(2012. 4. 12. 오후간식)

병관이가 떡볶이를 괴물이라고 하자 창민이도 “괴물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떡볶이를 먹었다. 병관이는 떡볶이를 괴물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창민이에게 보여주었다. 병관이와 창민이는 떡볶이를 괴물이라고 하면서 간식을 먹었다. 병관이와 창민이는 떡볶이를 괴물로 상상하며 간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했다.

다음은 창민이가 채소밥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흉내를 내자 세은이와 재원이도 채소밥전으로 비행기 놀이를 하는 사례이다.

< 사례 4 : 비행기가 되어버린 채소밥전 >

창민이는 채소밥전을 포크로 집어서 날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창민 : 비행기다. 높이 날아.

세은이도 창민이를 따라서 포크로 채소밥전을 집어서 날아가는 흉내를 낸다.

세은 : 이것 거꾸로 찍~

재원이도 포크로 채소밥전을 집어서 날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빙글빙글 돌린다.

재원 : 내 것은 구르면서 찍~

유아들은 간식을 포크로 집어서 비행기 놀이를 한다.

(2012. 6. 14. 오후간식)

창민이가 채소밥전을 포크로 집어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흉내 내자 세은이와 재원이도 마치 채소밥전이 비행기가 된 것처럼 날아가는 흉내를 내었다. 창민이가 먼저 채소밥전이 비행기라고 하자 세은이와 재원이의 채소밥전도 비행기가 되었다. 세은이의 채소밥전 비행기는 거꾸로 날고 재원이의 채소밥전의 비행기는 빙글빙글 날았다. 유아들은 간식을 단순히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로 바꾸어갔다. 간식은 또 다른 놀잇감으로 변해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다.

다음은 현민이와 태후가 부침개는 괴물의 얼굴이라고 상상하는 사례이다.

< 사례 5 : 부침개는 괴물 얼굴 >

현민 : 어허~ 자.

현민이는 부침개를 포크에 집어서 태후에게 보여준다.

태후 : 얼굴이다.

현민 : 여기 있어. 나와.

현민이와 태후는 부침개에 있는 채소들을 보고 괴물 얼굴이라고 한다.

태후 : 괴물이다.

현민 : 이힛.

(2012. 7. 4. 오후간식)

현민이와 태후는 부침개에 있는 채소들을 보고 괴물의 얼굴이라고 상상 속에 빠졌다. 간식을 먹으면서 현민이와 태후에게는 현실과 다른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며, 의미있는 관계 맺기를 배워 나간다. 놀이는 유아에게 가장 보편적이며 나아가 인간발달에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신은수 외 4명, 2011). 이와 같이 유아들은 간식을 통해서 떡볶이를 괴물로 상상하고, 채소
밥전을 비행기로, 부침개를 괴물의 얼굴이라고 상상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의 상상놀이는 유아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보다 발전된 추상적 사고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둘러싼 세계를 재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은 상상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과 친숙하게 되며, 자신과 보다 더 넓은 사회 사이의 맥을 잇는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조화연, 2007).

2. 경쟁하며 대장되기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은 본인 및 상대방, 그리고 상호관계, 더 나아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한다(이정민·엄정애, 2012).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경쟁을 하면서 빨리 먹는 모습,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바르게 먹는 모습들을 보였다.

a. 빨리 먹기 대장

유아들에게 있어 간식을 빨리 먹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었다. 유아들은 간식을 빨리 먹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빨리 먹는 일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으면서 유아들끼리 빨리 먹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6 : 우리 일등으로 먹자 >

현민이는 간식을 다 먹은 후 병관이에게 간식 그릇을 보여주면서 다 먹었다고 자랑을 한다.

현민 : (병관이에게) 내가 일등으로 먹었다.

병관 : (재원이에게) 우리가 또 일등하자.

재원 : 나도 일등할거야.

(2012. 4. 26. 오전간식)

현민이가 간식을 다 먹은 후 병관이에게 일등으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병관이도 일등으로 먹겠다고 재원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민이가 간식을 다 먹은 모습은 병관이와 재원이에게 간식을 빨리 먹겠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병관이와 재원이는 간식의 맛을 느낄 틈도 없이 오직 빨리 먹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서로 빨리 먹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간식을 거의 다 먹은 영민이가 “세 번 만에 간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장호는 영민이보다 더 빨리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사례 7 : 나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 >

영민 : 나는 세 번 만에 다 먹을 수 있다.

수진 : (영민이에게)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영민 : 세 번만 먹으면 다 먹어.

장호 : 나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

장호는 남은 간식을 단숨에 다 먹어버린다.

장호 : 내가 일등이다.

(2012. 7. 26. 오전간식)

간식을 먹으면서 영민이가 얼마남지 않은 간식을 보고 “세 번만 먹으면 다 먹어”라는 이야기를 하자 장호는 영민이보다 간식을 더 빨리 먹기 위해 남은 간식을 마치 마시듯이 먹어버렸다. 장호에게 영민이는 경쟁상대가 되어 영민이보다 더 빨리 먹은 후 “내가 일등이다”라고 말하면서 뿌듯해했다.

사례 6, 7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유아들에게 간식시간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닌 서로 빨리 먹겠다는 경쟁의 시간이 되었다. 빨리 먹는다는 경쟁을 통해서 빨리 먹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인간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협력과 경쟁행동을 배우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본다(한국행동과학연구, 1984). 따라서 간식을 무조건 빨리 먹는 것만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정해진 간식시간에 맞추어 먹으면서 유아들끼리 올바른 경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b. 정리정돈 대장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간식을 다 먹은 후 그릇을 정리하고 흘린 음식을 치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유아들에게 간식 시간은 정리정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 정리정돈을 잘 하려는 경쟁하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사례는 우유를 마시고 다 먹은 우유팩을 정리하는 사례이다.

< 사례 8 : 우유팩 정리하기 >

현민이는 우유를 다 마신 후 우유 통에 우유팩을 던진다.

세정 : (현민이에게) 던지면 안 되거든.

우유를 다 마신 세정이는 우유 통에 우유팩을 조심스럽게 넣는다.

현민이는 세정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쌓기 영역으로 가서 교구를 만진다.

우유를 마시다가 책상에 흘려버린 태후는 휴지를 가져와서 흘린 우유를 닦는다. 그리고 남은 우유를 마신다.

유아들은 다 먹은 우유팩을 우유 통에 정리한다.

영민이와 세계는 다 먹은 우유팩을 접어서 우유 통에 넣는다.

(2012. 5. 18. 오후간식)

현민이가 우유를 다 마신 후 우유통에 우유팩을 던지자 세정이는 던지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다. 현민이는 세정이의 말을 무시했지만 세정이는 우유팩을 던지지 않고 정리를 했다. 태후는 우유를 마시다가 흘린 우유를 휴지를 가져와서 닦는 모습을 보였으며, 영민이와 세계는 다 먹은 우유팩을 접어서 우유 통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간식을 먹은 후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은 후 그릇을 정리하는 사례이다.

< 사례 9 : 간식 그릇을 소리 나지 않게 정리하기 >

누릉지를 다 먹은 장호가 간식 그릇과 숟가락을 싱크대에 정리를 한다.
장호가 싱크대 안에 그릇과 숟가락을 넣자 싱크대 안에 있던 그릇들이 부딪치면서 소리가 난다.
수진 : 선생님이 소리 안 나게 정리하라고 그랬어.
장호 : 알았어. 알았어.
수진이는 남은 누릉지를 다 먹은 후 그릇과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싱크대 안에 정리한다.
수진 : 정리하는 것도 일등해야지.
민경 : 나도 정리 잘 할 수 있어.
간식을 다 먹은 민경이도 간식 그릇과 숟가락을 싱크대 안에 소리 나지 않게 정리를 한다.

(2012. 7. 17. 오전간식)

장호가 간식을 다 먹은 후 간식 그릇과 숟가락을 정리하자 싱크대 안에 있던 그릇들이 부딪치면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은 수진이는 소리 나지 않게 정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수진이가 간식을 다 먹은 후 간식 그릇과 숟가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 민경이는 “나도 정리 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서둘러 간식을 먹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간식을 먹은 후 서로 정리를 더 잘 하려는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간식을 먹으면서 흘린 간식을 정리하는 사례이다.

< 사례 10 : 흘린 간식 휴지로 닦기 >

세은이는 검은콩 죽을 먹다가 책상에 흘린다.
세은이는 일어서서 교실 뒤쪽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와서 흘린 죽을 닦는다. 흘린 죽을 닦은 후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옆에 있는 태후는 간식을 다 먹은 후 간식 그릇과 숟가락을 정리한다.
태후는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와 자기 자리의 흘린 검은콩 죽을 닦는다.
태후 : (세은이에게) 내가 여기도 닦아줄게.

세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태후는 세은이가 자리에 흘린 검은콩 죽을 닦아준다.

(2012. 7. 31. 오전간식)

세은이가 간식을 먹다가 흘린 간식을 휴지로 닦았다. 태후도 간식을 먹은 후 흘린 간식을 휴지로 닦으면서 정리정돈 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후는 자신의 자리만 닦지 않고 세은이가 흘린 간식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정리정돈이란 유아들이 활동을 끝마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활동이 끝난 다음, 자신이 사용한 교구나 자료를 제자리에 정돈하는 것이다(서현, 이승은, 2009). 유아들은 간식시간을 통해 정리정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다른 유아에게 정리정돈을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박윤호(1991)는 선의의 방법에 의한 올바른 경쟁성은 목표물에 대해 자기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고 하였다. 즉 유아들은 간식을 먹은 후 정리정돈을 하면서 책임감을 기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c. 바르게 먹기 대장

유아들은 식사습관 모델에 따라 식습관에 영향을 받으므로 바람직한 식사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은진(1997)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급식지도를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간식시간은 유아들에게 먹을 때 바르게 먹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

다음은 세정이가 현민이에게 바르게 앉아서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11 : 똑바로 앉아서 먹어 >

현민이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다.

세정 : 너 그러다가 꼬부랑 할아버지 된다.

현민 : 어?

세정 : 꼬부랑 할아버지 된다고.

현민 : 나 할아버지 아니거든.

세정 : 예쁘게 안 앉으면 꼬부랑 할아버지 된다고 그랬어.

(2012. 4. 24. 오전간식)

현민이는 의자가 넘어갈듯이 앉아 있자, 세정이가 바르게 앉아야 된다고 가르쳐줬다. 현민이에게 충고를 한 세정이는 바로 앉아 간식을 먹었다. 세정이의 이야기를 들은 현민이도 자세를 바로 잡아 간식을 먹었다.

다음은 창민이가 인이에게 숟가락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례이다.

< 사례 12 : 숟가락 바르게 잡기 >

인이가 숟가락을 주먹을 쥐면서 잡고 브로컬리 죽을 먹는다.

창민 : 숟가락 이렇게 잡는거야.

창민이는 인이에게 숟가락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장호 : 나는 젓가락질 할 수 있다.

창민 : 나는 뽀로로 젓가락 있어.

(2012. 6. 14. 오전간식)

인이가 주먹을 쥐면서 숟가락을 잡고 간식을 먹자 창민이는 인이에게 숟가락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창민이가 하는 숟가락 잡는 모습을 보고 인이는 숟가락을 바르게 잡아 간식을 먹었다.

사례 11, 12에서는 유아들이 간식시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바르게 앉아서 먹는 것과 숟가락을 바르게 잡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amii(1980)는 적절한 경쟁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거나 앞서기 위한 노력 이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양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히 경쟁하는 모습이 아닌 바람직한 식사습관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3. 이야기하며 우정 만들어가기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의 하나로 우정관계를 들 수 있다. 우정이란 교우관계, 공유하기, 생각과 기분 이해하기,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위로하고 돌보기 등의 상호관계라 할 수 있다(Berk, 2007).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다른 유아에게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아와 함께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우정이 형성된 유아들은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또래 속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a. 친밀감 표현하기

유아들은 간식시간을 통해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간식을 많이 먹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분단에 앉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또 서로의 손을 만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간식을 먹기 전 병관이가 재원이에게 “우리 많이 먹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3 : 우리 많이 먹자 >

병관 : 재원아, 우리 죽 많이 먹자.

재원 : 응.

병관 : 우리 죽 많이 먹자.

재원 : 피망도 많이 먹자.

(2012. 4. 10. 오전간식)

간식을 먹기 전 병관이는 옆에 앉아있는 재원이에게 간식으로 나오는 죽을 많이 먹자고 이야기를 했다. 재원이는 평소 싫어하는 피망을 많이 먹겠다고 병관이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처럼 간식시간에 너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우정이 싹트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간식을 많이 먹자”라는 서로 다짐하는 모

습을 보였다.

사랑반은 뽀로로 분단, 토마스 분단, 파워레인져 분단 이렇게 세 분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음은 뽀로로 분단인 세정이가 영민이에게 “우리는 뽀로로 분단이지”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4 : 우리는 뽀로로 분단이지 >

간식을 먹기 전 교사는 유아들에게 “뽀로로 분단 손 씻고 오세요” “토마스 분단 손 씻고 오세요”라고 이야기 한다.

손을 씻고 온 세정이는 자리에 앉는다.

세정 : (옆에 앉은 영민이에게) 우리는 뽀로로 분단이지.

영민 : (고개를 끄덕이며) 응. 우리는 뽀로로 분단이지.

병관 : 우리는 토마스 분단이다.

세정: (병관이에게) 너는 뽀로로 분단 아니냐.

병관 : 나는 토마스 분단이다.

(2012. 5. 14. 오후간식)

세정이는 같은 분단인 영민이에게 “우리는 뽀로로 분단이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정이와 영민이의 이야기를 들은 병관이도 대화에 동참하고 싶어서 “토마스 분단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뽀로로 분단이 아닌 병관이는 세정이와 영민이에게는 다른 분단에 앉는 친구였다. 세정이와 영민이는 “뽀로로 분단”이라는 같은 분단에 앉는다는 공통된 소속감이 있었다. 병관이는 같은 분단에 앉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다음은 수진이와 진이가 간식을 먹다가 서로의 손을 만지는 사례이다.

< 사례 15 : 친구의 손 만지기 >

새우 죽을 먹다가 수진이와 진이는 서로의 손을 만진다.

진이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수진이에게 채워준다.

진이는 수진이에게 집에서 가져온 인형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준다.

진이와 수진이는 새우 죽을 먹지 않고 인형을 만지면서 미소 짓는다.

(2012. 8. 23. 오전간식)

진이와 수진이는 같은 분단 옆자리에 앉는 친한 사이였다. 진이와 수진이는 간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먹지 않고 서로의 손을 만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진이는 수진이에게 자신의 시계를 채워주면서 애정 표현을 하였다. 진이는 집에서 가져온 인형을 수진이에게만 보여주면서 같이 만지고 있었다. 진이와 수진이가 간식을 먹지 않고 인형을 만지는 모습이 마치 둘만의 비밀을 나누는 모습처럼 보였다.

사례 13, 14, 15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문혜련(2011)은 유아의 친구관계를 유지, 발달시켜감에 있어 초기의 친구관계는 같이 놀고 같이 무엇을 만드는 신체적인 접촉 관계의 수준에서 일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나, 성장하여 감에 따라 단순하였던 신체적 상호작용은 감정에 기초한 상호적인 친구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b. 경험 나누며 공유하기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 간식을 먹다가 생일잔치를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집에서 설거지와 요리를 해보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또 견학을 다녀왔던 이야기, 산타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간식을 먹다가 세정이가 생일잔치를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례이다.

< 사례 16 : 생일잔치 노래 부르기 >

세정 : 우리 어제 생일 파티 했지. 수진이랑.

재원 : 우리 생일잔치 했지.

수진 : 응.

세정 :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수진 :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민경 : Happy birthday to you~
세정 :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수진 :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세정이는 간식을 먹다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른다.
세정 :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2012. 4. 27. 오후간식)

세정이가 간식을 먹다가 “생일파티 했지” 하면서 생일잔치를 했던 이야기를 꺼내자 재원이가 “우리 생일잔치 했지”하면서 생일잔치를 함께 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세정이가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수진이와 민경이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아들은 잠시 간식 먹는 것을 멈추고 어제 생일잔치를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집에서 설거지와 요리를 해보았던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7 : 설거지와 요리를 해봤어 >

세은 : 나 옛날에 설거지 했는데…
창민 : 어디서?
세은 : 집에서.
창민 : 집에서?
세은 : 응.
세계 : 엄마랑 같이 설거지 했어.
창민 : 엄마랑 같이 설거지 했어?
수진 : 설거지 안 했는데…
창민 : 안했어?
재원 : 나는 엄마랑 같이 요리했는데…
창민 : 무슨 요리했는데?

재원 : 계란요리.

세정 : 계란요리?

재원 : 응.

세정 : 나 옛날에 호박요리 했는데…

재원 : 호박요리?

세정 : 나 혼자서.

재원 : 무슨 요리 했다고?

세정 : 호박요리.

(2012. 5. 4. 오후간식)

세은이가 설거지를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세계도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세은이와 세계의 이야기를 들은 수진이는 설거지를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쉬워했다. 재원이가 엄마와 같이 계란요리를 해보았다고 하자 세정이는 혼자서 호박요리를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유아들은 서로의 비슷한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함께 견학을 다녀왔던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8 : 우리 같이 견학 다녀왔지 >

세정 : 나 함평에 곤충보고 왔어.

재원 : 나도 봤는데...

창민 : 우리 같이 보고 왔잖아.

세정 : 우리 함평 나비축제 보고 왔지.

창민 : 나비도 보고, 사마귀도 보고, 장수풍뎅이도 봤지.

세정 : (웃으면서) 나비도 보고.... 재미있었지.

(2012. 5. 7. 오전간식)

세정이가 곤충을 보았다고 견학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자 재원이는 “나도 봤는데...” 창민이도 “우리 같이 보고 왔잖아” 하면서 견학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들은 함께 견학에서 보았던 곤충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산타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들을 이야기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19 :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 >

병관 : 난 집에서 산타 할아버지 봤다.

세정 : 산타할아버지 집에 왔어.

민경 : 나는 집에 헬로 키티 있어.

세정 : 집에 헬로 키티 있어?

민경이는 세정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재원 : 근데 산타할아버지 오는데....

세정 : 양재원. 우리 뜨거운 것 먹을 수 있지? 뜨거운 것.

재원 : 근데 옛날에 산타할아버지가 우리 형아거랑 내거랑 두 개 줬는데, 내 선물을.... 형아 선물에는 사탕이 있고, 내 선물에는 뽀로로랑 마이쭈가 있었어. 많이 있었다. 나는 마이쭈 있다.

세정 : 나는 산타할아버지가 밤에 와서 책도 주고, 우리 엄마는 곰돌이 인형도 줬어. 우리 아빠한테는 파워레인져 총 주고, 우리 고모한테는 스케치북 주고, 이모는 썰매주고, 우리 외삼촌은 컴퓨터 주고 그랬다.

병관 : 산타할아버지가 나는 사탕 줬다.

재원 : 산타할아버지가 밤에 사탕을.... 뽑기 사탕을 줬다. 뽑기 사탕.

세정 : 나도.

(2012. 5. 25. 오후간식)

병관이가 산타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재원이와 세정이는 산타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들을 이야기하였다. 병관이가 산타할아버지한테 사탕을 받았다고 하자 재원이와 세정이도 산타할아버지에게 사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산타할아버지에게 같은 선물을 받았다고 유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였다.

오채선과 염지숙(2004)은 유아들이 소속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더 견고하고 오

래 지속되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공통된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우정관계를 형성하며, 결국 우정관계를 통해 집단에서 소속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구관계는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여진다.

c. 또래 속에 하나 되기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소그룹으로 앉아서 간식을 먹는다. 여러 유아들끼리 둘러앉아 있으면서도 유아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친하다고 느끼는 유아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다음은 세정이가 수진이와 재원이에게 사탕을 주지만 병관이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20 : 수진이랑 재원이만 사탕 줄 거야 >

세정 : 우리 집에 오면 껌 남겨놓을 거야. 아이스크림도.
병관 : 나는?
세정 : 아이스크림도 남겨놓을 거야. 어… 사탕도, 사탕도 열 개 남겨놓을 거야.
남겨놓을 거야.
병관 : 나는?
세정 : 열 개 남겨놓을 거야.
수진 : 그럼 나는?
세정 : 당연히 주지.
재원 : 나는?
세정 : 너도, 양재원도 당연히 주지.
병관 : 나는?
세정 : 너는 안 오잖아.
병관 : 너도 껌 안 사줘.

(2012. 4. 24. 오후간식)

세정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면 껌과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이야

기를 시작하였다. 세정이는 친한 친구인 수진이와 재원이에게 집에 놀러오면 사탕을 준다고 하지만 병관이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세정이는 병관이가 계속 “나는?” 하면서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고, 수진이와 재원이가 물어볼 때에는 “당연히 주지” 라고 이야기 하면서 특별한 관계임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민경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21 : 우리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줄게 >

영민 : 민경아, 내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성현이랑 줄게.

세정 : 나도. (민경이에게) 옛날에 우리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줄게. 아니 진이랑 줄게.

영민 : (민경이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성현이랑 줄게.

세정 : 우리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줄 거야.

(2012. 6. 12. 오후간식)

영민이는 민경이와 성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정이는 민경이와 진이에게 “아이스크림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호감을 표현하였다.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누가 인기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유아들에게 인기가 있는 민경이에게 영민이와 세정이는 아이스크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경이를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우정 관계를 통해서 유아는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서로의 상호작용 통해 감정적으로 유대관계를 발달시키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성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우정 관계의 경험은 유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이해뿐 아니라 결국 자기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한다고 한다 (Youniss, 1980).

간식시간은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유아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유아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또 우정이 이미 형성된 유아들은 간

식시간에 그들만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혜란(2008)은 우정은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집단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B.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 작용

1. 친구 되어가기

유아교육 교사는 유아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다(Katz, 1984). 즉 유아교육 교사는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서유현, 2002).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 참여시키는 모습, 원활한 간식시간을 위해 제안하는 모습, 간식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지지와 격려가 오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교사와 유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a. 간식을 먹기 위해 참여시키기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 도우미로 선정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교사는 바르게 앉아있는 유아나 노래를 잘 부르는 유아를 간식도우미로 선정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간식도우미가 된 유아는 간식그릇이나 포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새로 등원하게 된 세계를 간식 도우미로 선정해주고 또한 간식 도우미가 되고 싶어 하는 유아들에게 앉아있는 자리 순서대로 간식 도우미로 선정해 주겠다는 사례이다.

< 사례 22 : 간식 도우미가 되고 싶은 유아들 >

교사 : 자, 사랑반 친구들 죽 먹읍시다. 사랑반 친구들~

유아들 : 네~ 네~ 선생님.

교사 : 오늘은요. 새로운 친구 세계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세계 : 네.

교사 : (세계에게) 알았지요? 오세요. 간식 도우미 해 주세요.

병관 : 선생님 나는요?

교사 : 세계하고 오늘은 누가 해 주냐면… 세계야, 친구들 그릇 하나씩 나눠 주세요. 자, 오늘 또 한명 누굴까?

재원 : 저요.

수진 : 저요.

병과 : 저요.

영민 : 저요.

교사 : 우리 오늘 끝에서부터 돌아가자. 끝에부터. 끝에 있는 친구들부터 줄줄줄 차례대로 간식 도우미 시켜줄게요. 장호, 친구들에게 간식 그릇 나눠주세요.

장호 : 네.

교사 : 오늘은 세계하고 장호 시켰으니깐, 내일은 서영이랑 현민이 시켜줄게요.

병관 : 나는요? 나는요?

교사 : 병관이도 나중에 시켜 줄 거야. 병관이는 누구랑 시켜줄 거냐면 여기 성현이랑 같이 시켜 줄 거야.

세정 : 나는요? 선생님, 나는요?

교사 : 세정이는 저기 창민이랑.

(2012. 3. 23. 오전간식)

교사는 새로 등원한 세계를 간식 도우미로 선정하였다. 유아들은 서로 간식 도우미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들이 앉아있는 순서대로 간식도우미를 선정해준다고 하였다. 간식도우미가 된 세계와 장호는 뿌

듯해하며 간식 그릇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교사는 유치원에 등원한지 얼마 안 된 세계를 간식 도우미로 선정해 주면서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유치원 생활에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 간식 도우미가 되고 싶어 하는 유아들에게 앉아 있는 순서대로 간식 도우미로 시켜준다고 하면서 간식 시간에 참여시켰다.

다음 사례는 교사가 바르게 앉아있는 유아에게 간식 도우미로 선정해준다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23 :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가 간식 도우미가 될 거예요 >

교사 : 자, 예쁘게 앉으세요. 누가 예쁘게 앉는지 봐야지.

유아들은 자리에 앉고, 교사는 간식을 나누어 줄 그릇을 가져온다.

교사 : 어디 누가 간식 도우미 할래요?

유아들 : 저요. 저요. 저요.

교사 : 아까부터 예쁘게 앉아있던 우리 안서영이가 해주세요. 서영이랑 민경이가 도와주세요.

간식 도우미가 된 서영이와 민경이는 유아들에게 간식 그릇을 나누어 준다.

교사 : 숟가락은 선생님이 나누어 줄게요.

(2012. 4. 2. 오전간식)

간식을 나누어 주기 전 교사는 유아들에게 바르게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바르게 앉은 유아에게 간식 도우미를 선정해줌으로서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기 전 배웠던 노래를 부르면서 유아들을 집중시키고 노래를 잘 부르는 유아에게 간식 도우미로 뽑아주는 사례이다.

< 사례 24 : 노래를 잘 부르면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

교사 :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손 씻고 다 준비 되었지요. “유치원에 갑니다.”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유아들 : 네.

쨍쨍쨍쨍 쨍쨍쨍 쨍쨍. 해는 떴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쌩쌩쌩쌩 쌩쌩쌩 쌩쌩. 바람 부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펑펑펑펑 펑펑펑 펑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교사 : 바르게 앉으세요. 노래 그것 밖에 못해요? 큰소리로 불러야지. 아까는 저기 앞에 친구들 시켜줬지요. 지금은 노래 잘 부르는 친구 간식 도우미 시켜줄 거예요. 자, 쨍쨍쨍. 시작~
유아들은 더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쨍쨍쨍쨍 쨍쨍쨍 쨍쨍. 해는 떴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쌩쌩쌩쌩 쌩쌩쌩 쌩쌩. 바람 부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펑펑펑펑 펑펑펑 펑펑. 눈이 오는데 어디 가나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재원 : 내가 일등이야.
교사 : 수진이랑 세정이. 포크 나눠 주세요. 민경이도 잘하고 병관이랑 현민이도 잘 했어요.

(2012. 4. 20. 오후간식)

간식을 먹기 전에 교사는 유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수업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불렀다. 교사가 노래를 잘 부르는 유아에게 간식 도우미를 시켜준다고 하자 유아들은 집중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유아들에게 간식 도우미가 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유아들은 간식 도우미가 되고 싶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간식 도우미로 수진이와 세정이를 뽑아주면서 간식 도우미가 되지 못한 유아들에게도 노래를 잘 불렀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 원활한 간식시간을 위해 제안하기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간식으로 나오는 떡볶이가 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식을 먹기 전 주위를 정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기 전 자리에 앉지 않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자

리에 앉으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25 : 자기 자리에 앉기 >

교사 : 예쁘게 앉으세요.

세정 : (유아들에게) 앉아.

민경 : 너도 앉아.

교사 : 세정아,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세계도 자기 자리에 가서 앉자. 아직도 자리에 안 앉은 친구가 있어요.

세정 : 선생님 나 앉았어요.

교사 : 그래. 간식 맛있게 먹자.

(2012. 3. 26. 오전간식)

교사는 간식을 먹기 전 자리 앉지 않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세정이는 자신은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서 마치 선생님이 된 듯이 친구들에게 “앉아”라고 이야기 했다. 교사는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은 세정이에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처럼 간식을 먹기 전 교사는 유아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간식으로 나온 떡볶이가 맵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사례이다.

< 사례 26 : 떡볶이가 매우면 우유와 같이 먹기 >

교사 : (유아들에게) 자, 손을 무릎에 짠.

유아들 : 짠.

교사 : 어디 아직도 무릎에 안한 친구가 있네.

재원 : 전 했어요.

교사 : 오늘 간식은 무엇일까요?

유아들 : 떡이요.

교사 : 무슨 떡이요?

유아들 : 매운 떡이요.

교사 : 하나도 안 맵던데…

재원 : 안 맵던데…

교사 : 하나도 안 맵던데…

병관 : 난 조금한 것 먹을 거야.

교사 : 오늘은 떡볶이에요. 안 매워요. 매우면 우유랑 같이 먹어요.

(2012. 4. 12. 오후간식)

교사는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에게 간식으로 떡볶이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재원이가 떡볶이가 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병관이는 간식을 조금만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교사는 떡볶이가 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아들에게 맵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매우면 우유랑 같이 먹을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간식을 먹기 전에 교사가 유아들에게 교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리정돈을 제안하는 사례이다.

< 사례 27 : 간식을 먹기 전에 주변 정리하기 >

교사 : 자, 앉으세요. 빨리~ 애들아, 바닥에 있는 쓰레기 한 번 주워보자. 어떤 친구가 주워줄래?

교사의 말을 듣고 영민이는 바닥에 있는 색종이 조각을 줍는다.

교사 : 역시 손영민 밖에 없다. 우리 손영민이 항상 선생님을 잘 도와주지요. 그래서 비타민도 받았지요.

영민이는 교사를 보면서 씨익~ 웃는다. 옆에 있던 창민이와 성현이도 색종이 조각을 줍는다.

교사 : 우와~ 한창민도 선생님을 도와주는구나. 우리 성현이도 도와주고....

세정 : 나도 주웠어요.

교사 : 잘했어요.

(2012. 8. 7. 오후간식)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은 색종이를 자르는 활동을 하였다. 교사는 교실 바닥에 떨어져있는 색종이 조각을 줍자고 유아들에게 제안하였다. 영민이가 먼저 교

사의 말을 듣고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색종이 조각을 줍자 교사는 영민이에게 칭찬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유아들도 교실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교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자고 제안하는 교사의 말을 들은 유아들에게 교사는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c. 간식관련 경험 나누기

교사는 유아들과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나나를 먹어봤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음 사례는 유아들이 교사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 사례 28 : 선생님께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

교사 : 애들아 오늘은요. 맛있는 채소 죽이래.
재원 : 왜, 채소 죽이에요?
교사 : 채소를 많이 먹으면 키도 쑥쑥 자라고 얼굴도 예뻐지고 그런대.
재원 : 나 채소 잘 먹는다.
수진 : 나 호박 맛 좋아해.
교사 : 호박?
병관 : 나도 채소 다 먹어버리는데…
세정 : 나도 채소 먹을 수 있는데…
교사 : 그렇구나.
세정 : 나 케이크이랑 옥수수랑 좋아해.
재원 : 나는 딸기 좋아해.
창민 : 선생님 나 어렸을 때 케이크랑 수박이랑 옥수수 좋아했어요.
교사 : 그랬어?
창민 : 네
수진 : 선생님 호박 좋아해요. 호박.
교사 : 우와~ 우리 사랑반 친구들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다. 뭐든지 잘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고 건강해진대.

(2012. 5. 30. 오전간식)

간식을 먹기 전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으로 나온 채소 죽을 소개하면서 죽에 들어있는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다. 유아들은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교사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유아들과 간식을 다 먹으면 바나나를 준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29 : 간식을 다 먹으면 바나나를 줄게요 >

교사 : 떡볶이 다 먹으면 바나나 줄 거예요. 이하빈 엄마가 친구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바나나 사오셨어요. 친구들 주라고…

세은 : 바나나 안 먹어도 돼.

교사 : 안 먹었지. 그러니까 먹을 거야.

세은 : 바나나 안 먹을 거야.

교사 : (세은이에게) 안 먹을 거야?

재원 : 나 옛날에 집에 있는 것, 그것 바나나 먹어 봤는데…

교사 : 재원이 바나나 먹어봤지. (세은이에게)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선생님이 다 먹고… 선생님이 다 먹을까?

재원 : 아니요.

교사 : 선생님이 다 먹어야지.

세은 : 안 해요.

재원 : 혼자 먹으면 뚱뚱해지는데…

(2012. 6. 1. 오후간식)

교사는 하빈이 어머니께 받은 바나나를 유아들에게 간식을 다 먹으면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세은이는 바나나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재원이는 집에서 바나나를 먹어봤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세은이가 바

나나를 먹지 않겠다고 하자 교사는 “선생님이 다 먹어야지”라고 했다. 세은이는 “안해요”하면서 바나나를 먹겠다고 하고, 재원이는 교사가 바나나를 다 먹을까 봐 혼자서 먹으면 뚱뚱해진다고 교사에게 말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d. 지지와 격려 오고 가기

교사는 늦게 먹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기도 하고 지지하며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유아들은 교사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간식을 더욱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사례 30 : 누가 빨리 먹는지 봐야겠다 >

대부분의 유아들은 간식을 먹고 정리를 하였으나, 몇 몇 유아들은 아직 간식을 다 먹지 못 하고 있다.

진이와 영민이는 간식을 느리게 먹고 있다.

교사 : 진이가 먹는지, 영민이가 먹는지 봐야겠다.

영민이와 진이는 교사의 말을 듣고 서둘러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

교사 : 잘 먹구나. 영민이가 빨리 먹겠네.

교사는 유아들이 간식을 먹은 후, 수업 진행을 하기 위해 정리를 서두른다.

세은 : 다 먹었어요.

교사 : 세은이 미역 다 먹었네. 이제 두 숟가락 남았네.

교사는 세은이의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영민 : 미역만 먹을 수 있어요.

교사 : 응. 그래.

세은 : 당근도 먹을 수 있어.

교사 : 당근 먹으면 눈이 반짝 거린대.

병관 : 당근 먹어야 된대.

간식을 다 먹고 정리한 세은이는 나무 블록 중에서 주황색 나무 블록을 찾는다.

세은 : (교사에게) 당근이에요.

(3월 20일 오전간식)

유아들이 간식시간에 간식을 늦게 먹으면 다음 활동시간에 지장이 있으므로 교사는 늦게 먹는 유아들에게 “누가 잘 먹는지 봐야겠다” 하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는 간식을 먹은 유아들의 자리를 정리해주고, 다음 활동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유아들은 남은 간식을 빨리 먹기 시작하였다. 평소 미역과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 세은이가 간식에 들어있는 미역과 당근을 다 먹지 않고 다 먹었다고 하였다. 교사는 남은 간식을 먹여주면서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남은 간식을 모두 먹은 세은이는 정리를 하고 당근과 같은 색깔인 블록을 찾아와서 교사에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세계에게 교사가 간식을 먹여주는 사례이다.

< 사례 31 : 세계에게 간식을 먹여주는 교사 >

교사 : 세계야. 왜, 죽을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 응? 왜, 안 먹어? 아침에 죽 먹고 왔어? 아니 밥 먹고 왔어? 얼마큼 먹었어? 밥을…

세계는 교사에게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인다.

교사 : 세 번 먹었어? 세 번 밖에 안 먹었어?

세계 : 근데 네 번 먹었는데…

교사 : 근데 네 번 먹었어. 세계야, 이것 죽 다 먹어야 된대. 그래야지 세계 키도 크고 그래야지 조금 있다 친구들하고 활동하고 그러지. 세계 머리 아파? 세계야, 선생님이 한번 먹여줄게. 아~해봐.

교사는 세계에게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우리 세계 이렇게 잘 먹어? 꼭꼭 씹어. 꼭꼭 냠냠냠. 세계야 우리 빨리 먹고 친구들하고 미술하자. 알았지?

세계는 혼자서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

(2012. 4. 4. 오전간식)

감기에 걸려 입맛이 없는 세계는 간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교사는 세계에게

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지, 몸이 아픈지 물어보고 간식을 먹여주었다. 교사는 세계에게 잘 먹는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꼭꼭 씹어 먹으라고 간식을 먹여주었다. 세계는 먹지 않고 있던 채소죽을 혼자서 먹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지지와 격려 해주는 교사의 사례이다.

< 사례 32 :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는 교사 >

교사 : (재원이와 수진이에게) 이 두 친구가 제일 말도 안 듣고요. 간식도 안 먹고요. 양재원아 왜 안 먹어? 아빠가 우리 아들 살 빠졌다고 걱정하셔. 왜 안 먹고 있었어? 응?

교사는 재원이에게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이렇게 잘 먹으면서. 선생님이 먹어버려.

교사는 재원이의 간식을 먹는 척 한다.

교사 : 냠냠. 맛있다. 엄마랑 아빠가 재원이 밥도 안 먹고 그런다고 너무 걱정해. 집에서도 잘 먹으란 말이야.

재원 : 난 집에서도 멸치 먹었는데.

교사 : 그러지. 아~

교사는 재원이에게 간식을 먹여준다.

병관 : 나도 집에서 멸치 먹었는데.

교사 : 잘 먹네. 이렇게 잘 먹는 친구들이 왜 안 먹을까요? 한 입만 먹여줄게요. 한 입만 먹여줄게요. 알았지? 아~

교사는 재원이와 수진이에게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선생님이 먹여주니깐 더 맛있어? 안 맛있어?

교사는 창민이에게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다음부터 혼자서 먹기. 오늘만 선생님이 먹여주는 거야.

재원 : 다음부터 혼자서 먹을 거예요.

병관 : 선생님, 나도 혼자서 먹었어요.

재원이는 다 먹은 간식 그릇을 정리한다.

(2012. 5. 10. 오전간식)

교사는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었다. 교사가 간식을 먹여주자 유아들은 간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유치원에서 간식을 잘 먹지 않는 재원이와 수진이에게 집에서도 음식을 잘 먹으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교사는 재원이에게 다음부터는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지해 주자 재원이 혼자서 간식을 먹은 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다음 사례는 교사가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고, 간식을 먹지 않고 정리하려는 세정이에게 남은 간식을 먹여주고 정리하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33 : 간식을 다 먹고 선생님께 그릇 보여주며 검사받기 >

교사 : 재원아, 살 빠지는 이유가 채소도 안 먹고 죽도 안 먹어서 살 빠진대. 빨 리 예쁘게 먹어. 아까 그랬잖아. 재원이가 채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고. 그랬지? 얼른 그것(플라스틱 병) 나두고 빨리 드세요. 빨리 죽 먹으세 요.

창민 : 키가 쑥쑥 자라고 다 먹었어요.

교사 : 그러지요. 키가 쑥쑥 자라려고 다 먹었지요.

교사 : 자, 애들아. 수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먹었어요? 앉으세요. 바르게 앉으 세요. 의자 당기고.

교사는 수진이에게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이렇게 먹여주면 선생님이 아가라고 그랬지요. 아이고~ 우리아가 잘 먹 네.

교사는 재원이에게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왜 , 먹여주는 줄 알아? 너희들이 다른 친구들 다 먹을 때까지 아직도 안 먹고 있지요.

세계 : 선생님, 나 이것(간식으로 나온 새우채소죽) 먹었어요.

교사 : 먹고 나서 여기 옆에 자리 정리해요.

인이는 아직 간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있다.

교사 : 인이 다 먹었어?

교사가 인이에게 간식을 먹었냐고 물어보자 옆에 앉은 병관이는 남은 간식을 모두 먹어버린다.

교사 : 우와 병관이 잘 먹는다.

병관 : 선생님 다 먹어버렸는데…

교사 : 우리 사랑반 다 잘 먹어. 그렇지? 사랑반 다 잘 먹지.

교사는 아직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유아들에게 이야기 해준다.

교사 : (인이에게) 아~ 크게 아~ 더 크게 아~

교사는 인이에게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세정 : 선생님, 다 먹었어요.

교사 : 어디 봐요. 어디 봐요. 검사 안 맞고 가버리지요. 다 안 먹고 버릴려고 가 다가 걸렸지요. 줘 봐요.

세정이는 간식을 다 먹었다고 했지만 그릇에 죽이 남아있다.

교사 : 이렇게 많이 나두고 버리려고. 아~ 키 크겠다. 아~

교사는 세정이의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정리. 화장지 가지고 와서 닦으세요.

세정이는 간식을 다 먹은 후 그릇을 정리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의 흘린 간식을 화장지로 닦는다.

(2012. 5. 30. 오전간식)

교사는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재원이와 수진이에게 “우리 아가”라고 하면서 간식을 먹여주었다. 간식을 아직 다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우리 사랑반은 잘 먹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와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인이에게도 간식을 먹여주고, 또 간식을 다 먹지 않고 정리하려는 세정이의 남은 간식을 먹여주었다. 교사는 세정이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간식을 먹으면 키가 크겠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이처럼 교사는 간식시간에 유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유아를 간식 도우미로 뽑아주고,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간식과 관

련된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지지와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식시간은 교사와 유아에게 친밀감이 형성되어 친구 같은 사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Howes, Phillips, Whitdbook (1992)의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과 또래 수용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갖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와 사회가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하위덕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교육부, 1998). 기본생활습관이란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사회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3).

기본생활습관은 생득적 행동인 반사행동과는 달리 출생 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기에 일단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가 지나면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유아기에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장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유아기의 습관형성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며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생활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본다(박정옥, 2009). 교사는 간식시간을 통해 유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유아들은 식사의 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청결과 절제를 배우게 되었다.

a. 예절이 필요해요

예절은 기본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해와 존중, 사랑과 공경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일로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어울려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마찰과 불편을 피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유아들의 예절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에서 우러나오는 예절 행위는 어른들로부터의 모방이나 의도적인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엇이나 잘 받아들이는 유아들에게 가정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교사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유치원 교육과정 속의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좋은 예절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예절 교육이라 할 수 있다(김승신, 2001). 이처럼 교사는 유아들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간식을 먹도록 지도하였고, 입에 음식을 담고 이야기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다. 결과적으로 간식시간은 유아들에게 식사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간식을 먹다가 책상 위에 실내화를 올려놓은 유아와 교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이다.

< 사례 34 : 책상 위에 실내화를 올려놓은 재원이와 수진 >

교사 : 우리 재원이 나쁜 벌레가 입 속으로 들어가겠다. 신발은요. 밖에도 신고 나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그러는데, 나쁜 벌레가 다 묻어있는데 책상 위에다가 죽 그릇 옆에다가 두면요. 죽 그릇 속에 나쁜 벌레가 들어간대요. 그럼 그 나쁜 벌래가 들어간 죽을 먹으면 재원이 몸속에 벌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재원 : 수진이도 올렸어요.

교사 : 그러니깐 둘이.

재원 : 그럼 치카치카 하자. (수진이를 보면서) 우리.

교사 : 아니야. 치카치카 해도 그것은 이미 몸속에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주사 맞아야하는데...

재원 : 엉덩이도.

교사 : 그럼 주사 맞으러 갈 수밖에 없지.

수진 : 선생님 엉덩이도 아프죠.

(2012. 6. 5. 오후간식)

재원이와 수진이는 책상 위에 실내화를 올려놓으며 간식을 먹지 않고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교사는 몸속에 벌레가 들어간다고 그럼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했다. 교사는 재원이와 수진이에게 식사예절을 가르쳐주었다.

다음 사례는 교사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는 병관이에게 바르게 앉아서 간식을 먹으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35 :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간식 먹기 >

교사 : 애들아, 선생님 말 따라해. 병관아.

유아들 : 병관아.

교사 : 자리에.

유아들 : 자리에.

교사 : 예쁘게 앉아.

유아들 : 예쁘게 앉아.

교사 : 다리 내리고.

유아들 : 다리 내리고.

교사 : 애들아. 병관이처럼 앉으면 꼬부랑 할머니 된다. 아니 꼬부랑 할아버지 된다. 예쁘게 안 앉아서. 허리 피고.

병관 : 선생님…

교사 : 병관이 바르게 앉으세요. 멋진 할아버지 되게.

병관이는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울어버린다.

교사 : 병관이 뚝. 알았어. 병관이 나중에 예쁜 사람 되자. 알았지? 예쁜 할아버지 되자. 그러니깐 의자에 발 넣고 바르게 앉아봐. 얼른 허리피고 의자 당겨서 앉고.

(2012. 7. 24. 오후간식)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병관이를 보고 교사는 바르게

앉으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바르게 앉지 않으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자 병관이는 울어버렸다. 교사는 그런 병관이를 달래주면서 바르게 앉는 자세를 가르쳐주었다.

다음은 교사가 간식을 먹다가 이야기하는 유아들에게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야기 나누자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36 : 유아들에게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교사 >

간식을 먹다가 유아들은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교사 : 사랑반 친구들~

장호 : 네네~ 선생님.

교사 : 우리 사랑반 친구들 중에서는 박장호 밖에 없네요. 음식을 먹을 때는요. 친구들아. 음식을 입에 담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음식이 다 앞으로 튀어나 오겠지요. 그럼 앞에 친구가 좋을까? 안 좋을까?

유아들 : 안 좋아요.

교사 : 안 좋지요.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해야지. 누가 지금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할까요?

유아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조용히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

(2012. 8. 12. 오후간식)

유아들이 간식을 먹다가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유아들에게 교사는 음식을 입에 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주었다.

b. 질서를 지킬래요

질서는 공공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특히 사물의 순서를 알고 차례를 지키는 것은 질서 지키기의 출발점이며,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와 같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질서는 유아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을 위한 공공규칙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지켜야 함을 이해시켜 행동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효선, 2004). 유아들은

간식을 먹기 전 질서를 지키며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이 교사와 함께 화장실에 가면서 줄을 서는 사례이다.

< 사례 37 : 교사와 함께 줄을 서서 화장실에 가는 유아들 >

교사 : 의자 넣고 오세요. 의자 나란히, 나란히 예쁘게 하세요.

유아들은 의자를 정리한 뒤 교사 앞으로 모인다.

교사 : 자, 손 걷고…

교사는 혼자서 옷소매를 올리지 못하는 유아들의 옷소매를 올려준다.

세은 : 선생님, 나도 손 걷어주세요. 나도 손 걷어주세요.

교사는 손을 씻기 전에 유아들의 옷소매를 걷어준다.

교사 : 한 줄 기차하세요.

유아들 : 네~ 네~ 선생님.

옷소매가 조금 올라간 세정이가 교사에게 옷소매를 보인다.

교사 : 괜찮아. 이 정도는 손만 씻고 올 거예요.

재원 : 이거는요?

교사 : 괜찮아요. 자, 줄 서세요. 두 줄 기차 되고, 세 줄 기차 되었네.

수진 : 선생님, 민경이는 안 왔어요.

민경이는 유아들의 맨 뒤에 줄을 선다.

교사 : 자, 출발.

유아들은 한 줄로 줄을 서서 교사를 따라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간다.

(2012. 3. 15. 오전간식)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손을 씻기 위해 줄을 서서 화장실에 갔었다. 유아들은 서로 교사의 앞에 서기 위해 줄을 잘 서지 못하자 한 줄로 서자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손을 씻기 전 옷 소매가 젖지 않도록 옷소매를 올리지 못한 유아를 도와주었다.

c. 청결한 간식 자리가 되었어요

청결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청결히 유지하고 가정과 유치원, 생활주변에 대한 청결에 관심을 갖고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지도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1998).

유아들은 간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이런 유아들에게 흘린 간식을 닦아 자리가 깨끗해지도록 지도하여 주었고, 간식을 먹기 전 주위를 정돈하여 청결한 간식 자리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다.

다음은 간식을 먹기 싫어서 간식을 버린 세은이의 주변을 교사가 정리해주는 사례이다.

< 사례 38 : 세은이가 버린 간식을 정리해주는 교사 >

교사 : (세은이에게) 다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는데요. 의자 당겨서 앉으세요.

이세은. 이것 (간식에 들어있는 채소) 다 어디에 있니?

장호 : 이세은~ 버렸어요.

교사 : 어디에?

장호 : 화장지에 싸서 버렸어요.

교사 : 화장지에 싸서 버렸어?

장호 : 여기(바닥)에도 버렸어요. 매트 위에도....

교사 : 이세은. 진짜 매트 위에 버렸어?

세은이는 교사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장호 : 네. 아까요.

교사 : (세은에게 남은 간식을) 어서 먹어요.

장호 : 아까 버렸는데....

교사는 세은이가 주변에 흘린 간식을 정리해 준다.

교사 : (세은에게) 어서 먹어요. 채소가 먹기 싫다고 간식을 버리면 안 돼요.

(2012. 4. 4. 오전간식)

채소를 싫어하는 세은이는 채소죽 속에 들어있는 채소를 골라서 교사 몰래 버렸다. 교사는 세은이의 채소죽 속에 채소가 없자 세은이에게 채소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 있는 장호가 세은이가 화장지 싸서 버리고 매트에 버렸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는 세은이가 흘린 간식을 정리해 주면서 채소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다음은 간식을 다 먹은 후 교사가 유아들에게 책상에 흘린 간식을 닦으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39 : 간식을 먹은 후 흘린 간식 닦기 >

교사 : 애들아. 사랑반 친구들~

유아들 : 네. 네. 선생님~

교사 : 사랑반 친구들~

유아들 : 네. 네. 선생님~

교사 : 저기 봐봐. 병관이랑 저기는 사랑반 친구들 아닌가봐. 그 친구들은 대답 도 안 해주네. 이제 방금 죽 먹었잖아요. 목소리 크게 한번 해보게. 사랑 반 친구들~

유아들: 네. 네. 선생님~ (유아들은 더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교사 : 사랑반 친구들아 죽 먹었는데, 자기 책상에 밥풀이 흘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책상에 밥풀이 흘린 친구는 손 한번 들어볼까?

영민: 여기 없어요.

교사 : 흘린 친구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유아들 : 있어요.

교사 : 선생님이 보기에는 흘린 친구 있는데…

성현 : 병관이요.

교사 : 인이도 바닥에 좀 흘렸네. 인이가 선생님하고 같이 닦아볼까? 애들아, 자기 책상은 깨끗이 닦아야 된대. 그래야지 나중에 공책 펴도 밥풀이랑 공책에 안 묻겠지요.

유아들 : 네.

교사 : 선생님이 화장지 줄게 자기 책상 흘린 부분 휴지로 닦아. (인이에게) 여기 닦아요. 인이 정리하고.

세은 : 선생님, 나 흘렸어요.

교사 : 흘렸어요? 자 여기.

교사는 세은이에게 휴지를 준다.

세정 : 흘린 것 먹으면 안 돼.

민경 : 나도 흘렸어요.

교사는 민경이에게 휴지를 준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받은 휴지로 자기 자리를 닦는다. 교사는 유아들이 흘린 간식을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교사 : 휴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바닥에 버린다. 2번 쓰레기통에 버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병관아.

병관 :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교사 : 옳지. 버리고 오세요. 인이야. 콕콕 찝어봐. 문지르지 말고요. 문지르면 으스러지니깐. 콕콕 찍어. 콕콕콕콕. 다했다. 끝~

교사는 인이가 흘린 간식을 닦는 것을 도와준다.

교사 : 이것 봐. 누가 비타민 먹고 여기에 쓰레기 버렸어? 애들아 우리 바닥에 벌레가 많이 많이 돌아다니겠다. 교실 바닥에 쓰레기가 돌아다니면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지요.

유아들 : 네.

교사 : 나쁜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지요.

민경 : 네.

교사 : 바닥에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보자.

세정 : 누가 주울래? (교사처럼 말하는 흉내를 낸다.)

교사 : 저기 쓰레기 떨어져 있는데 누가 주울 거예요?

세정 : 저요.

교사 : 민경이가 주워버렸네.

(2012. 6. 18. 오전간식)

간식을 먹은 후 교사는 유아들에게 책상에 흘린 간식을 정리하라고 하였다.

휴지로 책상에 흘린 간식을 닦은 유아에게 어디에 버려야하냐고 물어보자 병관이는 쓰레기통에 버려한다고 대답하였다. 인이가 흘린 간식을 문지르면서 닦자 교사는 휴지로 찍으면서 책상을 닦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교사는 유아들에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자고 하면서 청결의 의미를 심어주었다.

다음 사례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전 주변을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 사례 40 : 간식을 먹기 전에 주변 정리하기 >

교사 : 애들아, 바닥에 있는 쓰레기 한 번 주워보자. 어떤 친구가 주워줄래?

교사의 말을 듣고 영민이는 바닥에 있는 색종이 조각을 줍는다.

교사 : 역시 손영민 밖에 없다. 우리 손영민이 항상 선생님을 잘 도와주지요. 그 래서 비타민도 받았지요.

영민이는 교사를 보면서 씨익 웃는다. 옆에 있던 창민이와 성현이도 색종이 조각을 줍는다.

교사 : 우와~ 한창민도 선생님을 도와주는구나. 우리 성현이도 도와주고....

세정 : 나도 주웠어요.

교사 : 잘했어요.

(2012. 8. 28. 오후간식)

간식을 먹기 전 유아들은 색종이를 자르는 활동을 하여 교실 바닥에 색종이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흘린 색종이를 주워 주위를 정돈하자고 하였다. 교사는 주위 정돈을 잘하는 유아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d.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절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뜻한다. 유아들이 자신의 충동과 요구에 따라 행동을 하다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박정옥, 2009). 유아들이 간식시간에 교구를 가지고 놀고 싶은 충동을 참고,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사는 가르쳐주었다.

다음은 교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현민이와 태후에게 간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 사례 41 : 간식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기 >

교사 :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장난감이지요. 그럼 지금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현민 : 근데 저기 장난감이…

교사 : 지금 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죽 먹는 시간이지요. 장난감, 교구 가지고 노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죽 먹고 두 가지를 하네.

장호 : 태후도 만져요.

교사 : 하태후도 가져다 놓고 오세요. 선생님이 아직 죽 먹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노는 시간이라고 안 그랬어요.

태후 : 네.

(2012. 7. 11. 오전간식)

사랑반은 프로젝트 수업으로 장난감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수업을 위해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집에서 가지고 왔다. 현민이와 태후는 간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 현민이와 태후에게 교사는 장난감을 정리하고 나서 간식을 먹으라고 했다.

다음은 교사가 간식을 다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현민이에게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 사례 42 : 돌아다니지 않고 간식 먹기 >

교사 : (현민이에게) 간식 드셨어? 앉아서 먹어요. 선생님이 먹을 것 돌아다니면서 먹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 해봐요.

현민 : 아니요.

교사 : 아니지요~ 빨리 자기 자리로 가세요.

현민이는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은 간식을 먹는다.

(2012. 8. 2. 오전간식)

간식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현민이는 간식을 먹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교사는 현민이에게 자리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라고 했다.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현민이는 자리에 앉아 남은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유아는 간식시간을 통해서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하였다. 기본생활 습관이 잘 형성된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적응이 원만하여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면서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잘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강경아, 2011). 이러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유아들이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우며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3. 맛있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기

간식시간은 교사와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고, 교사는 편식하는 유아들에게 골고루 먹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유아와 교사는 즐거움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 측면에서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교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 맛있게 먹기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더욱 잘 먹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간식으로 나온 음식을 더 달라고 하고 많이 먹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간식으로 나온 누룽지를 다 먹은 후 더 먹겠다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43 : 맛있는 누룽지 더 먹기 >

병관 : 내가 먼저 다 먹을 거야.

영민 : 선생님 우리 집에 과자 많이 있어요. 과자.

세계 : 더 먹을래요.

교사 : 어. 잘했어. 더 먹고 싶은 친구들 더 먹어요.

교사는 간식을 다 먹은 세계에게 간식을 더 준다.

하빈 : 이것 다 먹은 다음에 더 먹어야지.

병관 : 나도. 내가 빨리 먹을 거야.

교사 : 빨리 먹었어?

세은 : 빨리 먹어.

영민 : 나도 빨리 먹을 거야.

교사 : 애들아 맛있어?

세은 : 네.

교사 : 어떤 맛이야?

영민 : 누룽지 맛이요.

교사 : (웃으면서) 누룽지지요. 오늘은.

성현 : 죽 맛이에요.

교사 : 애들아 꼭꼭꼭 씹어 먹어요. 진이 오늘 많이 먹었네. 더 먹을래?

교사는 간식을 다 먹은 진이에게 간식을 더 준다.

병관 : 나도 많이 먹을 거야.

교사 : 더 줄까요? 깨끗하게 먹어야지.

교사는 성현이의 남은 간식을 먹여준다.

교사 : 더 먹을 거예요? 그만 먹을 거예요?

성현이는 고개를 가로 젓는다.

교사 : 정리하세요.

(2012. 5. 18. 오전간식)

유아들은 간식을 다 먹은 후 간식을 더 먹겠다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들이 간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이자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으로 나온 누룽지가 어떤 맛인가 물어보았다. 특히 유아들이 언어적 놀이를 하면 그 시간을

즐기며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유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다 먹고 더 먹겠다고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 사례 44 : 핫케익 간식을 좋아해서 더 달라고 하는 유아들 >

수진 : 선생님, 나도 먹고 싶어요.

교사 : 여기 있어요.

세은 : 선생님, 나 없어요.

교사는 간식을 다 먹은 세은이에게 핫케익 간식을 더 준다.

재원 : 나 또 줘요.

교사 : 몇 개 없으니깐 잘랐어.

교사는 간식을 다 먹고 더 먹고 싶어하는 창민, 수진, 세은, 재원, 태후에게 핫케익을 나누어 준다.

교사 : (유아들에게) 이제 끝. 이제 간식 없어요.

(2012. 6. 28. 오후간식)

유아들이 좋아하는 핫케익이 간식으로 나오자 유아들은 평소 먹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간식을 모두 먹은 후, 간식을 더 먹겠다고 교사에게 이야기했다. 교사는 얼마 남지 않은 핫케익을 더 작게 잘라서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교사에게 간식을 많이 주라고 하는 사례이다.

< 사례 45 : 간식 많이 주세요 >

교사 : 앉으세요. 우와~ 오늘은 닭죽이다.

장호 : 고기 많이 주세요.

교사 : 그래.

재원 : 나도 많이 주세요.

교사 : 네.

(2012. 7. 20. 오전간식)

교사가 유아들에게 간식이 닭죽이라고 소개하였다. 장호는 닭죽 속에 있는 고기를 많이 주라고 하고 재원이도 간식을 많이 주라고 교사에게 이야기하였다. 유아들은 좋아하는 닭고기를 많이 주라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식을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었다.

b.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기

유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은 일생동안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신체적 성장발육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양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유지에 원동력이 된다(정연강·조정순, 2003). 따라서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이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기 위해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간식을 먹기 전 교사가 유아들에게 간식 속에 들어있는 채소를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물어보는 사례이다.

< 사례 46 : 채소를 먹으면 어디가 좋을까? >

교사 : 애들아 오늘 죽은요. 순두부하고 채소가 들어갔대.

재원 : 나 채소 좋아하는데…

교사 : 응. 채소 좋아? 채소 먹으면 어디가 좋아?

창민 : 키가 쑥쑥 자라고 키가 쑥쑥 자라요.

교사 : 키가 쑥쑥 자라요?

창민 : 네.

교사 : 또?

재원 : 그리고 건강해.

교사 : 건강해져요. 맞아요.

재원 : 나는 채소 제일 좋아하는데…

교사 : 사랑반 친구들은 다 잘 먹을 수 있지요.

창민 : 채소 먹어야지 키가 쑥쑥 자라죠.

(2012. 5. 14. 오전간식)

간식을 먹기 전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간식 속에 들어있는 채소를 먹으면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았다. 창민이는 키가 쑥쑥 자란다고 하고 재원이는 건강해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채소를 잘 먹자고 하였다.

다음은 미역을 좋아하지 않는 세은이에게 교사가 미역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이다.

< 사례 47 : 미끌미끌 미역죽 >

세은 : (간식을 바라보면서) 이것 무슨 죽이에요?

교사 : 이것 닭고기 미역죽 같은데…

세은 : 나 미역 안 좋아하는데…

교사 : 미역 안 좋아해? 미끌미끌 미역이 입안에서 얼마나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

재원 : 나 미역 좋아하는데…

교사 : 그렇지.

세은 : 나도 좋아하는데…

교사 : 미역 좋아해야지. 미역 먹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진대.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려고 그릇에 미역죽을 담는다.

(2012. 7. 23. 오전간식)

미역을 먹기 싫은 세정이는 교사에게 미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는 그런 세은이에게 미역을 먹으면 입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난다고 하고 또 미역을 먹으면 얼굴도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다음 사례는 간식으로 나온 미역에 대해 교사가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례이다.

< 사례 48 : 미역을 먹으면 예뻐진대 >

세은이는 미역을 먹기 싫어서 옆에 앉아 있는 재원이에게 미역을 준다.

교사 : 어머~ 왜, 미역을 다 건져서 재원이에게 준대요? 미역 나두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교사는 세은이의 간식 그릇의 미역을 한쪽으로 치워 준다.) 미역 안 좋아하면 이쪽에 나두고 이것만 먹어.

병관 : 나 미역 좋아하는데…

교사 : 세은이는 몸이 안 좋아서 미역 안 먹어야 된대.

태후 : 미역 다 먹을 수 있지?

세은이는 다른 유아들이 미역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미역을 먹는다.

교사 : (세은이에게) 맛있지?

세은이는 교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병관 : 미역 먹으면 튼튼해지지요.

교사 : 미역 먹으면 얼굴이 예뻐진대.

태후 : 미역국 좋아해. 미역 안 먹으면 배 아프다고 했어.

병관 : (미역죽에 있는 당근을 먹으면서) 선생님, 나 당근 좋아해요.

교사 : 우와~ 진짜 멋지다.

(2012. 7. 23. 오전간식)

미역을 좋아하지 않는 세은이가 미역이 먹기 싫어서 옆에 앉아있는 재원이에게 미역을 주었다. 그런 세은이에게 교사는 미역이 먹기 싫으면 그릇 한쪽에 두고 먹으라고 하였다. 세은이는 친구들이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미역을 먹었다. 싫어하던 미역을 먹는 세은이에게 교사는 미역이 맛있냐고 물어보자 세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관이는 미역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하고 태후는 미역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c. 즐거움을 나누기

간식시간에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민혜영(1998)은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부모·교사·또래 중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교사보다는 소수의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증가시

키므로, 유아들은 개별적인 돌봄과 안정된 형태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수의 성인과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킨 유아는 좀 더 차분하고, 행복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주현 채경희 역, 2011)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 사례는 재원이가 교사의 말을 따라하면서 웃는 상황이다.

< 사례 49 : 교사의 말을 따라하고 웃는 재원이와 영민 >

교사 : 오늘 누가 늦게 먹나 봐야지. 누가 해찰하고 먹는지 봐야지.

재원 : 해찰.

영민 : 해찰.

재원이와 영민이는 교사의 말을 따라하고 웃는다.

교사도 재원이와 영민이를 보면서 미소 짓는다.

(2012. 6. 8. 오후간식)

교사가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누가 해찰하는지 봐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재원이와 영민이는 해찰이라는 단어가 웃긴지 교사의 말을 따라하면서 웃었다. 교사는 그런 유아들을 함께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교사에게 고기를 사준다고 말하는 사례이다.

< 사례 50 : 교사에게 고기를 사준다는 유아들 >

재원 : 선생님, 내일 나 선생님 손잡고 갈게요.

교사 : 어디 데리고 간다고? 어디?

재원 : 고기 집.

교사 : 고기 집? 무슨 고기 사주려고?

재원 : 돼지고기.

교사 : 아니야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창민 : 선생님, 고기 사줄게요.

세정 : 선생님, 고기 사줄게요.

교사 : (관찰자에게)우리 반 애들은 나만 보면 고기를 사주고 싶어 해요. 세정이가 처음 온 날 “선생님 예뻐. 나 선생님 고기 사줄 거야.” 온 첫

날 그랬거든요. “무슨 고기?” “소고기 사줄게요.” 그랬어요.

세정 : 나 닭고기 먹을 거예요.

교사 : 닭고기. 알았어. 내가 너무 잘 먹게 생겼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웃으면서)

세정 : 나 선생님 닭고기 줘야지.

재원 : 나 내일 선생님 고기 줘야지. 많이.

(2012. 7. 20. 오전간식)

재원이가 교사에게 고기를 사준다고 말하자 세정이와 창민이도 교사에게 고기를 사준다고 말하였다. 교사에 대한 애정표현을 유아들은 고기를 사준다고 하였다. 서로 고기를 사주겠다고 유아들과 교사들은 웃음을 나누면서 즐거워하였다.

이처럼 간식시간을 통하여 유아들은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었고,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Ⅴ. 논의 및 제언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교육기관에서 만 3세 유아들이 간식시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또래간의 상호작용

유아교육기관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만 3세반 또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유아들은 간식시간을 놀이시간으로 활용하기, 경쟁하며 대장되기, 이야기하며 우정 만들어가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놀이시간으로 활용하기

간식시간은 유아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놀잇감이 제거된 상태로 간식을 먹기 때문에 유아들이 놀이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유아들은 간식시간 동안 말장난을 즐기며, 상상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간식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말장난은 유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 중 하나였다. 간식시간에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나 행동 통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유아들이 서로 마주 앉은 공간에서 즐거운 말놀이를 즐겼다. 실제로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반복적으로 방귀라는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따라 하기도 했다. 이는 유민아(2007)의 연구에서 유아가 한 말을 계속 반복하여 되풀이하거나, 또래 유아의 질문에 시종일관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유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유아들은 간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놀이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괴물이라고 하고, 채소밥전을 먹으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흉내를

내면서 먹기도 하였다. 심지어 부침개에 있는 채소들을 괴물의 얼굴이라고 하면서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처럼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상상놀이는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보다 발전된 추상적 사고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둘러싼 세계를 재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상상놀이를 하면서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과 친숙하게 되며, 자신과 보다 더 넓은 사회 사이의 맥을 잇는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조화연, 2007)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식시간 동안 유아는 또래 상호작용 속에서 말장난을 통해 놀잇감 없이도 놀이를 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상상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단순히 먹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고 상상놀이를 즐기면서 다각적인 탐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경쟁하며 대장되기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경쟁을 하면서 빨리 먹는 모습,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바르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째, 유아들에게 있어 간식을 빨리 먹는 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었다. 유아들은 간식을 빨리 먹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단숨에 먹어버려서 빨리 먹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인간관계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협력과 경쟁행동을 배우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본다(한국행동과학연구, 1984). 이처럼 유아들에게 간식시간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닌 서로 빨리 먹겠다는 경쟁의 시간이 되었다. 빨리 먹는다는 경쟁을 통해서 빨리 먹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둘째,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간식을 다 먹은 후 그릇을 정리하고 흘린 음식을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아들에게 간식 시간은 정리정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 정리정돈을 잘 하려는 경쟁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윤호(1991)의 연구에서도 선의의 방법에 의한 올바른 경쟁성은 목표물에 대해 자기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간식시간은 유아들이 스스로 정

리정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다른 유아에게 정리정돈을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들은 식사습관 모델에 따라 식습관에 영향을 받으므로 바람직한 식사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식시간은 유아들에게 바르게 먹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바르게 앉아서 먹는 것과 숟가락을 바르게 잡는 방법을 배워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Kamii(1980)는 적절한 경쟁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거나 앞서기 위한 노력 이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히 경쟁하는 모습이 아닌 바람직한 식사습관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간식을 무조건 빨리 먹는 것만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정해진 간식시간에 맞추어 먹으면서 유아들끼리 올바른 경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들은 간식을 먹은 후 정리정돈을 하면서 책임감을 기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식습관에 영향을 받으므로 교사는 그들이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c. 이야기하며 우정 만들어가기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면서 유아들은 다른 유아에게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아와 함께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우정이 형성된 유아들은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또래 속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정 관계를 통해서 유아는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으로 유대관계를 발달시키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성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 집단에서의 우정 관계의 경험은 유아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이해뿐 아니라 결국 자기 이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Youniss, 1980).

첫째, 유아들은 간식시간을 통해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간식을 많이 먹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분단에 앉

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로의 손을 만지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문혜련(2011)은 유아의 친구관계를 유지, 발달시켜감에 있어 초기의 친구관계는 같이 놀고 같이 무엇을 만드는 신체적인 접촉 관계의 수준에서 일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나, 성장하여 감에 따라 단순하였던 신체적 상호작용은 감정에 기초한 상호적인 친구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 간식을 먹다가 생일잔치를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집에서 설거지와 요리를 해보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또 견학을 다녀왔던 이야기, 산타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친구관계는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보여진다. 오채선과 염지숙(2004)은 유아들이 소속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더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공통된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우정관계를 형성하며, 결국 우정관계를 통해 집단에서 소속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셋째,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소그룹으로 앉아서 간식을 먹는다. 여러 유아들끼리 둘러앉아 있으면서도 유아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친하다고 느끼는 유아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박혜란(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정은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집단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식시간은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유아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유아와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또 우정이 이미 형성된 유아들은 간식시간에 그들만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들이 간식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만 3세반 간식시간에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간식시간을 함께 하면서 교사는 유아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간식시간은 유아와 교사에게 맛있고 즐거운 시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친구 되어가기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 참여시키는 모습, 원활한 간식시간을 먹기 위해 제안하는 모습, 간식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지지와 격려가 오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교사와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와 유아들은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며,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는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서유현, 2002).

첫째,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 도우미로 선정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교사는 바르게 앉아있는 유아나 노래를 잘 부르는 유아를 간식도우미로 선정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간식도우미가 된 유아는 간식그릇이나 포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 둘째,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간식으로 나오는 떡볶이가 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식을 먹기 전 주위를 정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셋째, 교사는 유아들과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나나를 먹어봤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넷째, 교사는 늦게 먹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기도 하고 지지하며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유아들은 교사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간식을 더욱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Howes, Phillips, Whitdbook (1992)의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과 또래 수용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갖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

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간식시간에 유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유아를 간식 도우미로 뽑아주고,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이기 위해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간식과 관련된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또 간식을 먹지 않고 있는 유아들에게 간식을 먹여주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식시간은 교사와 유아에게 친밀감이 형성되어 친구 같은 사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b.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교사는 간식시간을 통해 유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유아들은 식사의 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청결과 절제를 배우게 되었다. 즉, 생득적 행동인 반사행동과는 달리 출생 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기에 일단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가 지나면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유아기에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장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유아기의 습관형성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며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 생활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본다(정옥분, 2002).

첫째, 유아들에게 간식시간은 식사예절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교사는 유아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간식을 먹으라고 지도하였고, 입에 음식을 담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다. 둘째, 간식을 먹기 전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면서 한 줄로 줄을 서서 가면서 질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교사는 유아들이 흘린 간식을 닦아 자리가 깨끗해지도록 지도하여 주었고, 간식을 먹기 전 주위를 정돈하여 청결한 간식 자리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다. 넷째, 교사는 유아들에게 간식시간에 교구를 가지고 놀고 싶은 충동을 참고,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절제를 가르쳐주었다.

이와 같이 유아는 간식시간을 통해서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하였다.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된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적응이 원만하여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면서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잘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강경아, 2011)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유아들이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됨을 시사해주었다.

c. 맛있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기

간식시간은 교사와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고, 교사는 편식하는 유아들에게 고르게 먹는 것을 지도하였다. 또한, 유아와 교사는 즐거움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측면에서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교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첫째, 간식시간에 유아들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더욱 잘 먹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교사에게 간식으로 나온 음식을 더 달라고 하고, 간식을 많이 먹겠다고 하였다. 둘째, 유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은 일생동안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간식시간에 교사는 유아들이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먹게 하기 위해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간식시간에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혜영(1998)은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요인들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부모·교사·또래 중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경우 다수의 교사보다는 소수의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므로, 유아들은 개별적인 돌봄과 안정된 형태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소수의 성인과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킨 유아는 좀 더 차분하고, 행복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주현 채경희 역, 2011)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간식시간을 통하여 유아들은 간식을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었고, 편식

하지 않고 고르게 먹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됨을 알 수 있었다.

B. 제언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식시간을 중심으로 만 3세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찰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간식시간외에도 하루일과를 토대로 한 추가적 관찰을 통해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유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갈등 상황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식시간의 유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식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의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아(2011). 반석어린이집 만 3세반 교사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육부(1998). **2007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김동례·허경현·이현경(2009).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급·간식 운영 실태조사 연구: 전남지역을 중신으로. **유아교육학회지, 13**(3), 5-30.

김미정(2001).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의 동기 및 성취전략.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신(2001). 유아들의 생활예절 행동 변화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양지(2010). 만5세반 점심시간의 또래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애·이형선(2010). 그림책 표현놀이를 통한 유아기 감정 다루기. 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 2010년 하계 워크샵, 51-78.

문혜련(2011). 만 5세 유아들의 우정의 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혜영(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윤호(1991). 아동의 협동성 및 경쟁성과 유아교육 경험유무와의 관련성. **아동교육, 1**(1), 59-74.

박정옥(2009). 교수방법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2005). 이슬반 유아들의 또래 경쟁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성(2009).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유아교육기관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경·방은정·심은희·원계선·윤복희·장영미·조인경·최일선(2005). 통합중심의 유아교과교육론. 서울: 교육아카데미

박혜란(2008). 5세 유아의 우정 형성과 유지과정 탐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2). http://stat.mw.go.kr/stat/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601.

서유현(2002). 유치원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현·이승은(2009). 유치원에서 자유선택활동 후 나타나는 정리정돈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9**(4), 171-196.

식약청 연구 개발(2008). **아이를 사로잡는 151가지 안심 밥상**. 서울: 파프리카

신은수·김은정·유영의·박현경·백경순(2011). **놀이와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심미연·임재택(2010). 1-5세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유아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0**(2), 211-235.

안수연(1999).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채선·염지숙(2004). 유아들의 놀이에 나타나는 우정에 대한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9**(2), 223-247.

유미(2010). **현장적응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이담북스.

유영상·김희정(1998). 서울시내 유아기 어린이의 간식실태 및 기호도에 대한 조사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8**(1), 20-27.

유효준·이영자(1986). **유아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윤민아(2007). 4,5세 유아들이 사용하는 유머 내용과 의도의 변화과정 탐색.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서석(2001). **식생활 역사**. 서울: 신광출판사.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이명진(1999). 연령과 성에 따른 유아의 상호작용 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금·이은화·이정환(1991). 한국 유아교육 기관의 간식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이성희·이명희·엄정애·김정현(2001).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급식 관리 운영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24, 83-103.

이소원(2004). 만 5세 해바라기반 유아들의 간식시간과 관련된 수학 교육 활동. **이화교육논청, 14**, 241-252.

이원영·방인옥·박찬옥(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2**(1), 71-90.

이정민·엄정애(2012). 유아들의 경쟁을 유발하는 교사의 전략과 전략사용 이유.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349-370

이현호(1997). 영아-교사간 애착 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놀이 참여 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선(2004). 몬테소리 일상생활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민(2002).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문제 행동 양상과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황영미(2000).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일반유아와 고립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303-324.

정미라·배소연·이영미(2008).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서울: 양서원.

정미라·이영미·이기완(2000). 유아교육기관의 간식 공급 현황 및 영향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8**(2), 99-113.

정연강·조정순(2003). **유아영양과 건강.** 서울: 양서원.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조경자·이현숙(2005). **유아건강교육**. 서울: 학지사.

조운주·최일선(20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지도**. 서울: 창지사.

조은진(1997). 유아 교사의 영양에 대한 이해와 간식운영. **한국영유아보육학, 12,** 101-123.

조화연(2007). 만 4세 파랑새반 유아의 상상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은연(2010). **아동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긍정적 원예치료**. 서울: 이담북스.

최정금(2009). **집중력을 높이는 유아놀이.** 서울: 경향미디어.

한국어린이육영회(1997). **교사를 위한 유아관찰지침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동과학연구(1984).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집**. 서울: 문교부.

Berk, L. E.(n.d.). *Infants and children.* 강숙현외 (역). **아동발달**. (2007). 서울: 정민사.

B. J. Logsdon(1984). 김상국 (역). (2003). **유아체육 프로그램**. 서울: 대한미디어.

Brunner, J.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ds.* Camb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iana L.(2002). Stories that families tell: Narrative coherence, narrative interaction and relationships belief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4), 215-216.

Elkind, D., & Weiner, I. B.(1978).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John Willy & Sons.

Hartup, W. W.(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ew York: Plenum Press.

Hestenes, L., Kontos, S., & Bryan, Y.(1993).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in child care centers varying in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295-307.

Howes, C. · Phillips, D. A. · Whitdbook, M.(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Jean Mercer(n.d.). 이주현·채경희 (역). (2011). **아동발달**. 서울: 명인문화사.

Kamii, C.(1980). *Application of Piaget's theory to education: The preoperational level.* In piagetian theory and research: New directions and applications, 23-25

Katz, L.(1984). Th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 Children, 39*(5), 3-10.

Katz, L.(1999). 김정원 (역). (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 기르기: 교사의 역할. 서울: 창지사.

Kontos, S., Wilcox - Herzog, A.(1997). Influences on children's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arterly 12,* 247-262.

Piaget, J.(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Salovey, P., & Mayer, J, D.(1990). Imagination cogitation and personality. *Emotional Intelligence, 9,* 185-211.

Vandell, D. L., Wilson, K. S., & Buchanan, N. R.(1980). Peer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An examination of its structure, content, and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51,* 481-488.

Vygotsky, L. S.(1978). *Mind of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ological processes.* Cambri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 록

1. A유치원의 간식 식단표 (2012년 3월~8월)

<부록1> 2012년 3월 간식 식단표

	일자 / 요일	(월)	(화)	(수)	1(목)	2(금)
첫째주	오전				3·1절	제철과일/우유
	오후					호박설기/ 도라지차
	일자 / 요일	5(월)	6(화)	7(수)	8(목)	9(금)
둘째주	오전	흰살생선죽	제철과일/우유	떠먹는 요구르트	제철과일/우유	마늘빵/우유
	오후	프렌치토스트/ 우유	새우볶음밥/ 보리차	무지개떡/식혜	물만두	버섯잡채
	일자 / 요일	12 (월)	13(화)	14 (수)	15 (목)	16 (금)
셋째주	오전	제철과일/우유	견과류씨리얼/ 우유	제철과일/우유	양송이 크림스프	제철과일/우유
	오후	녹두전/ 결명자차	쑥개떡/모과차	푸실리파스타	약과/우유	온메밀국수
	일자 / 요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넷째주	오전	연두부/양념장	미역된장죽	흑임자죽	제철과일/우유	콩나물김치죽
	오후	꿀떡/우유	찐감자/매실차	롤케익/우유	김가루잔멸치 주먹밥/옥수수 차	과일샐러드
	일자 / 요일	26 (월)	27(화)	28 (수)	29(목)	30(금)
다섯째주	오전	제철과일/우유	쇠고기채소죽	제철과일/우유	채소스틱/치즈	제철과일/우유
	오후	스크램블에그	오곡식빵& 사과쨈/우유	궁중떡볶이	찐고구마/우유	낙지수제비

2012년 4월 간식 식단표

	일자 / 요일	2(월)	3(화)	4(수)	5(목)	6(금)
첫째주	오전	견과류죽	제철과일/우유	채소죽	제철과일/우유	연두부/양념장
	오후	밀크요팡빵/우유	삼색볶음밥/보리차	찹살부꾸미/우유	토마토스파게티/피클	찐고구마/우유
둘째주	일자 / 요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아욱죽	19대 총선거	채소스틱/치즈	제철과일/우유
	오후	어묵탕	쑥버무리/우유		떡볶이/우유	탕수육/감귤주스
셋째주	일자 / 요일	16(월)	17(화)	18 (수)	19 (목)	20 (금)
	오전	브로컬리죽	제철과일/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제철과일/우유	삶은계란/우유
	오후	머핀/우유	버섯잡채/옥수수차	가래떡&꿀/우유	잔치국수	해물김치전/결명자차
넷째주	일자 / 요일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씨리얼/우유	제철과일/우유	소고기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두떱떡/우유	찐감자/매실차	스크램블에그	쌀강정/우유	영양닭죽
다섯째주	일자 / 요일	30 (월)				
	오전	제철과일/우유				
	오후	크로와상빵/우유				

2012년 5월 간식 식단표

첫째주	일자 / 요일		1(화)	2(수)	3(목)	4(금)
	오전		떠먹는요쿠르트	제철과일/우유	콩나물된장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맛탕/우유	푸실리 크림파스타	절편/우유	부추장떡/메밀차
둘째주	일자 / 요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연두부/양념장	제철과일/우유	낙지김치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고구마요플레 샐러드	소보로빵/우유	깨소스비빔국수	꿀떡/우유	건파래볶음밥/보리차
셋째주	일자 / 요일	14(월)	15(화)	16 (수)	17 (목)	18 (금)
	오전	연두부채소죽	제철과일/우유	씨리얼/우유	제철과일/우유	누룽지
	오후	찐감자/우유	영양닭죽	떡볶이/알로에주스	약과/오미자차	호밀빵&쨈/우유
넷째주	일자 / 요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크림스프/모닝빵	제철과일/우유	잔멸치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피망잡채/둥글레차	카스테라/우유	케이준샐러드/주스	단호박핫케이크/우유	만둣국
다섯째주	일자 / 요일	28 (월)	29(화)	30(수)	31(목)	
	오전	석가탄신일	제철과일/우유	새우살채소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치즈스틱/케찹	무지개떡/우유	볶음우동	

2012년 6월 간식 식단표

첫째주	일자 / 요일	(월)	(화)	(수)	(목)	1(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오후					떡볶이/주스
둘째주	일자 / 요일	4(월)	5(화)	6(수)	7(목)	8(금)
	오전	감자크림스프	제철과일/우유	현충일	제철과일/우유	백태죽
	오후	과일샐러드	소고기떡국		잔멸치주먹밥/보리차	잼샌드위치/우유
셋째주	일자 / 요일	11(월)	12(화)	13 (수)	14(목)	15 (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제철과일/미숫가루우유	브로컬리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누룽지해물탕	군만두/구기자차	잔치국수	채소밥전	백설기/매실차
넷째주	일자 / 요일	18 (월)	19(화)	20 (수)	21 (목)	22 (금)
	오전	타락죽	제철과일/우유	연두부/양념장	제철과일/우유	씨리얼/우유
	오후	후레쉬팡빵/우유	양배추치즈전/주스	찐고구마/우유	떡잡채/결명자차	과일샐러드
다섯째주	일자 / 요일	25 (월)	26(화)	27(수)	28(목)	29(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채소죽	제철과일/우유	흑임자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메밀국수	절편/우유	토마토스파게티/피클	견과류핫케익/우유	탕수육/옥수수차

2012년 7월 간식 식단표

	일자 / 요일	2(월)	3(화)	4(수)	5(목)	6(금)
첫째주	오전	제철과일/우유	녹두죽	제철과일/우유	떠먹는요구르트	제철과일/우유
	오후	크림스파게티	물만두/우유	채소부침개	두텁떡/우유	뿌리채소볶음밥/보리차
	일자 / 요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둘째주	오전	씨리얼/우유	제철과일/우유	김치죽	제철과일/우유	채소죽
	오후	과일화채	오징어튀김/알로에주스	롤케익/우유	호박녹두설기/결명자차	찐감자/우유
	일자 / 요일	16(월)	17(화)	18 (수)	19(목)	20 (금)
셋째주	오전	제철과일/우유	누룽지죽	제철과일/우유	삶은계란/우유	닭고기채소죽
	오후	우리밀머핀/우유	해물김치전/우유	기정떡/식혜	부추잡채	유자탕수육
	일자 / 요일	23 (월)	24(화)	25 (수)	26 (목)	27 (금)
넷째주	오전	닭고기미역죽	제철과일/우유	감자크림스프/모닝빵	감자채소죽	채소스틱/치즈
	오후	쌀강정/우유	고구마맛탕/매실차	꿀떡/우유	콩국수	크로와상/우유
	일자 / 요일	30 (월)	31(화)			
다섯째주	오전	제철과일/우유	검은콩죽			
	오후	스크램블에그	가래떡·꿀/우유			

2012년 8월 간식 식단표

첫째주	일자 / 요일	(월)	(화)	1(수)	2(목)	3(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채소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프렌치토스트/주스	찐옥수수/우유	토마토스파게티
둘째주	일자 / 요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근대된장죽	제철과일/우유	떠먹는요구르트/채소스틱	제철과일/우유
	오후	단호박찜/알로에주스	시금치핫케이크/우유	케이준치킨샐러드	궁중떡볶이/결명자차	비빔국수
셋째주	일자 / 요일	13(월)	14(화)	15 (수)	16(목)	17 (금)
	오전	씨리얼/우유	제철과일/우유	광복절	제철과일/우유	소고기죽
	오후	찐감자/주스	물냉면		약밥/냉메밀차	무지개설기/우유
넷째주	일자 / 요일	20 (월)	21(화)	22 (수)	23 (목)	24 (금)
	오전	제철과일/우유	양송이스프/조각식빵	제철과일/우유	새우죽	제철과일/우유
	오후	버섯피망잡채	증편/우유	참치김치볶음밥/보리차	카스테라/우유	핫케이크/주스
다섯째주	일자 / 요일	27 (월)	28(화)	29(수)	30(목)	31(금)
	오전	타락죽	제철과일/우유	스크램블에그	제철과일/우유	버섯죽
	오후	고구마과일샐러드	부추전/주스	소보로빵/우유	메밀국수	꿀떡/우유